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박종찬
편집주간 김성원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Tel. (051)245-7551~3 Fax. (051)245-7550
제작·인쇄 사인텔 Tel. (051)245-2337

동창회관 구입은 모든 동문들의 '자긍심'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띄우는 호소문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

제36대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6개월가량이 넘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정말 많은 동문들을 직접 만날 기회를 가졌고 밴드를 통해 까미득한 후배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명한 사실은 만나 본 동문들 중 동문회의 발전을 싫어하는 동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동문회의 발전에 대해 얘기하면 누구나 동조하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후배들로부터 동문회 변화요구를 느끼면서 지금 좁게 생각을 밝히는 것이 모든 동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한자 적습니다.

저의 강한 소신이 일부 선배님들에게 누가 되고 불경스러울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 망설이다가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각오로 기고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습득한 각 동문회 평가기준은 4가지인데 첫째는 배출한 동문들이 국가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또는 하고 있느냐, 둘째는 스포츠전통(야구)을 포함 선배는 빛나는 유산과 업적을 전수하고 후배는 그 정신을 이어 받도록 선후배간 얼마나 끈끈한 정이 흐르는가, 셋째는 모교발전의 원천인 우수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넷째는 선배들에게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고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사관을 가진 동창회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국내 최고 명문으로 자리매김한 우리 동문회를 현재시점 상기 4가지 기준(각 25점)으로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첫째 기준은 만점인 25점 둘째 기준 15점, 셋째 기준 20점, 넷째기준 0점, 총 60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점수가 아니며 낙제를 면한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동문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팔순을 넘기신 12회 이전 대선배님들께서는 이해나 납득이 되지 않는 점수라고 생각하실겁니다만 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동문회의 영원한 발전에 대해 최일선에서 고민하는 총동창회장입니다.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노무현대통령을 배출한 개성고(옛 부산상고)는 75점(15점+15점+20점+25점) 동문회로서 동문간 자부심을 한껏 느끼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총동창회관을 가지는 순간 85점 동문회가 되니까 실망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희망적인 것입니다.

부연컨대 19회 이용흥 전임회장 시절 창설한 부·울·경 동창회 연합회란 단체가 있는데 모임 때마다 동창회관을 가진 개성고, 동아고, 동래고 동문회에 비해 우리 동문회가 너무 초라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알려진 이태석 신부기념사업회, 최동원 기념사업회에 우리 동문회 지분이 1%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기념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일반인들 보기에 도 허울뿐인 명문고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동문회는 1회 임채홍 초대동창회장님 이하 20명의 동창회장을 배출하면서 막강한재



모교인 경남고 교정에 자리한 용마상.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경의 동문들과 함께 최고명문 동문회의 위상을 세우면서 엄청난 공적을 쌓아온 비는 모든 동문의 자긍심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이 걸어 온 화려한 발자취는 후배들이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만 그 정신재산은 이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평준화이후 배출된 동문들도 여러 분야에서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때 정계, 재계, 학계를 주름잡았던 선배님들의 과거 영광 속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에도 그 영광을 이어받는 영원한 명문동문회가 되어 선배들의 모교 사랑을 충족시켜 주는 후배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번째 대통령을 배출할 저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동문회 무궁한 발전은 <5면에 계속>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 로펌 및 진단 기업.

법무법인 일신·일신CNA

대표 변호사 **송지훈 (42회)**

이태석·상기 회자소속 | 건설·부동산 분쟁전문
공리사실 로지보상
건축물 하자진단·관공진단 및 보수공사 외

·국장 **정아준 (33회)** 010-6239-0301
·상무 **조진권 (44회)** 010-3029-7101

법무법인 일신·일신CNA
www.itslaw.kr

사무소: 부산시 서구 서소대로 281(서소동) 서해한빌
Tel. 02-303-7101 Fax. 02-303-7102

총동창회관 구입 기금 3,000만원이상 고액 기부자 동판 리스트

(2018. 8. 27 현재 기준)

- | | | | | | |
|--------------------------|--------------------------|--------------------------|----------------------------|--------------------------|--------------------------|
| (7회) 최만식
오현만원 | (18회) 김길제
사천만원 | (27회) 유재진
육천만원 | (23회) 김영기
일억이천만원 | (25회) 박종찬
일억원 | (25회) 김진철
육천만원 |
| (29회) 김대옥
육천만원 | (29회) 박성철
삼천만원 | (31회) 박중호
삼천만원 | (33회) 박명진
일천만원 | (33회) 김범영
사천만원 | (38회) 권두성
삼천만원 |

◆ 모금 계좌 ◆ 부산은행 : 101-2053-6720-01 • 경남중고총동창회 박종찬

기별야구대회 50주년 맞아 '동문 한마당 축제'로 개최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별야구대회가 동문들의 한마당 축제로 열린다. 사진은 지난 8월16일 부산역 옆 블레어하우스에서 열린 기별야구대회 조 추첨 후 참가자들이 찍은 단체사진. (사진=유원욱 편집위원(30회))

유명인사 대거 초청... 이벤트 경기 열고 경품 풍성 9월 29일 ~ 10월 20일 '용마의 가을 야구' 대결전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기별야구대회가 동문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으로 거행된다.

총동창회는 이같은 취지에 따라 박영길(14회) 동문 등 야구원로들과 프로야구선수 출신 동문뿐만 아니라 오거돈(21회) 부산시장 등 유명인사 동문들을 대거 입장식 행사에 초청하기로 했다.

기별야구대회는 모교인 경남고 야구장에서 오는 9월29일 오후 1시30분에 첫 경기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과 휴일을 이용해 시합을 벌여 10월20일에 청년부와 장년부의 결승전이 열린다.

이같은 일정은 지난 8월16일 오후 7시 부산역 옆 블레어하우스 웨딩홀에서 열린 '50주년 기별야구대회 2차 대표자 회의 및 조 추첨' 결과 확정됐다.

입장식은 10월6일 오전 11시에 거행되는데

입장식 후 이벤트 경기로 19회와 24회의 경기가 열린다.

그리고 10월13일 오후 1시 역시 이벤트 경기로 총동창회 대표와 재경동창회 대표간의 친선시합이 벌어진다. 이 날 재경동창회에서 대형버스 2대로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다. 경기 후에는 모든 동문들을 위한 바베큐 파티도 준비했다고 한다.

올해 기별야구대회의 백미는 첫게임에서 맞붙게 된 지난해 우승팀인 29회와 준우승팀인 33회의 경기로, 9월29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특히 이번 50주년 기별야구대회는 지난해까지 경야회에서 주최해 오던 것을 총동창회가 주최권을 넘겨받아 처음 치르는 대회로, 경야회와 덕령리가 경기주관과 진행을 맡게 됐다.

총동창회에서는 이번 대회를 동문들의 축

제 한마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50주년 기별야구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이문열 덕령리그 회장(29회)을 준비위원장으로, 경야회 박상국 회장(33회)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대회를 준비해 왔다.

이번대회에 많은 동문들과 가족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예산 3,800만원을 편성, 입장식과 폐막식때 참석자들에게 양산, 모자 등을 선물로 줄 예정이다.

이외도 동문들이 협찬한 TV 등 각종 경품이 행운권 추첨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대회에는 19회부터 52회까지 모두 27개 팀이 참가해 열전을 벌이며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인 공인 심판을 초청해 경기를 진행한다.

매 경기마다 MVP를 선정해 시상한다.

용마골프대회, 해운대비치CC서 열어

10월 16일... 최대한 많은 기수 참여 독려



올해 용마골프대회가 오는 10월16일 기장군에 위치한 해운대비치 CC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용마골프대회 모습.

올해 용마골프대회가 오는 10월16일 기장군에 위치한 해운대비치 CC에서 열린다.

주말이 아닌 평일대회로 열리는 이번 용마

골프대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 해운대비치 CC에 집결해 오후 1시에 티업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용마골프대회가 동래컨트리클럽

에서 열렸으나 33회 박병진 동문이 지난해 인수해 대표로 있는 해운대비치CC에서 올해부터 경기를 개최하기로 했다.

선수조에 편성되는 동문은 현대 28이하가 되어야 하며, 개인 시상은 신페리오방식에 의해, 단체시상은 전체 스트로크 갯수기준으로 시상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는 많은 기수들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 각 기수마다 4명 1개조만 참가를 허용하기로 해 모두 36개조 144명의 동문들이 골프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 운영세칙은 총동창회 부회장겸 운영위원장인 25회 송영근 동문과 부회장인 26회 박장현 동문이 담당하기로 했다.

그린피는 1인당 27,000원을 할인해 16만원이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이번 대회를 골프를 사랑하는 많은 선후배의 특별한 만남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기수가 골고루 참석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26회에서 52회까지 각 기수가 모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황호선 초대사장



황호선 동문(25회)이 지난 6월29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사장에 임명됐다.

황호선 동문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황 동문은 국제경제를 전공하고 글로벌 무역거래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해왔으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해왔다.

차관급 방위사업청장 왕정홍 동문 임명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왕정홍 동문(31회)이 지난 8월 30일 차관급 정무직인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감사원 출신 인사

가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25회)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왕정홍 동문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5년 행정고시(29회)에 합격한 뒤 1989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감사원 대변인, 건설·환경감사국장, 재정·경제감사국장, 감사교육원장, 기획조정실장, 제1사무처장, 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왕정홍 동문은 지금은 해체되고 없는 국제그룹 회장 양정모 회장의 사위로 알려져 있다.

신임 부산경찰청장 박운대 동문 임명



박운대 동문(32회)이 지난 7월25일 부산경찰청장에 임명됐다.

박 동문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대공 분야 경사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부산경찰청 홍보담당관과 울산남부서장, 서울 서부서장,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인천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쳤다.

동창들과 함께 올해내로 청와대 방문 기대

‘동창회보 구독료납부 4,000명 넘으면 매달 발행’

총동창회 임원모임 롯데호텔서 열려

경남중고 총동창회 임원 모임이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서면에 있는 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룸에서 총동창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임원모임에는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옥동훈 사무총장, 신승렬 사무국장 등 총동창회 집행부와 이용홍 고문(19회), 남진현 자문위원장(19회)과 자문위원단, 분과위원장단, 부회장단 등 임원단 50여명이 참석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옥동훈 사무총장의 사회로 참석자 전원에게 인사말이 이어졌다.

소개가 끝난 후 박종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한 지 6개월이 흐른 지금, 동창회의 업무와 흐름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을 했고, 재경 동창회와의 관계설정 등에 대해서도 알게됐다”며 “오늘 이자리에 모인 임원단 여러분이 동창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는 분들이므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창회 운영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종찬 회장은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문제점은 선배들의 피로감과 후배들의 무관심”이라며 “이것을 해소해 활기찬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오프라인으로는 동창회보와 온라인으로는 총동창회 밴드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찬 회장은 “선배 기수와 후배 기수간의 융합을 위해 적극적이면 모든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다”고 말하며 인사말을 끝낸 후, 나누어 준 유인물을 보며 이날 임원모임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모임의 목적은 50주년 기념 기별야구대회와 용마골프대회,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동창회관 건립 기금 현황, 80년사 집필, 청와대 방문, 오거돈 부산시장 방문 등 1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박종찬 회장은 “동창회관 건립 기금은 현재 모두 12명이 기부를 했다”고 알려주면서 이날 모임에 참석한 김대욱(29회)분과위원장과 박종호 부회장(31회), 김법영 부회장(33회) 등 회관건립 기금 기부자 3명을 소개했다.

박 회장은 또 “현재까지 동창회보 구독료를 납부한 동문은 2,572명으로 지난해 2,629명에 육박하고 있다. 선배기수들은 현상유지를 하고



경남중고 총동창회 임원단 모임이 지난 8월22일 서면에 있는 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후배들은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목표로 했던 4,000명 달성이 가능하다”며 “회보 구독료 납부자가 4,000명이 되면 기지를 한명 채용해 회보를 매달 발행하겠다. 주위에 있는 동문들에게 회보구독료 납부를 독촉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으로 박종찬 회장은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기별야구대회를 동문들의 축제의 장으로 개최하겠다”며 “모든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마당 축제’로 열리는 행사를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기별야구대회에 TV 등 경품과 경남중고 모자, 양산 등 많은 기념품을 준비해 행사장에 참가한 동문과 가족들에게 나누어줄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종찬 회장은 “지난해까지 동래컨트리클럽에서 열리던 ‘용마골프대회’를 박명진 총동창회 분과위원장(33회)이 최근 매입해 대표로 있는 부산기장군 해운대비치CC로 변경해 대회를 치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회 일정도 후배들로부터 월요일에 바쁜 동문들이 많으니 화요일에 개최해 달라는 건 의의가 많이 들어 와서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화요일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12일에 열리는 총동창회의 가장 큰 행사인 ‘용마의 밤’을 교통이 편리한 서면 롯데호텔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리 참석자들을 정확히 파악해 ‘노쇼’



총동창회 주최로 열린 임원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박종찬 총동창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총동창회 차원에서 오거돈(21회) 동문의 부산시장 당선 축하 방문과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 방문이 의제로 올랐다.

박종찬 회장은 “청와대 방문에는 동창회관 구입 기금을 기부한 동문을 우선으로 선발해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동창회관 구입기금 기부를 독려했다.

그리고 최근 전국최강의 전력을 갖추고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못하고 있는 경남고 야구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교체와 유임을 둘러싸고 팽팽한 토론이 이어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일부 동문의 경질 주장에 몇몇 동문이 동창회가 경고야구부에 지원한 적 거의 없고 야구부 운영은 사실상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감독의 거취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찬 회장은 50회 동문 3명이 ‘KNN배 고교대항 골프대회’에 경남고 이름을 달고 출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물어 본 뒤, 표결에 부쳐 박수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참석자 호칭·직책 생략

이용홍 남진현(19회) 최점수(21회) 광두회 노상우(24회) 박종찬 옥동훈 김종현 박세철 손기천 송정규 오양득 이명철 이상화 제영성 최차환 허택(25회) 노영현(28회) 김대욱 김종명 박성철 이승호(29회) 김현태 윤인태(30회) 류명석 박종호 오민일 최호식 김성원(31회) 김법영 류장근 박명진(33회) 정윤성(35회) 박진용 양호진 최승호 신승렬(36회) 김태호 심재영 윤경만 조석태(38회) 윤원욱 박근태 박인석(39회) 한수열(40회)

“직능별 동호회 활용으로 동창회 활성화시켜야”

부산지구 동창회 회장 및 국장단 모임

부산 지구동창회 회장 및 국장 초대 모임이 지난 7월19일 오후 7시 서면 롯데호텔 부산 43층 도림에서 총동창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박종찬 회장은 “지방 선거도 끝나고 각 지구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이야기 나누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서 곧바로 각 지구회장단 및 국장단과 박종찬 회장과 의 일문일답이 이어졌다.

중부산지구 동창회 임무홍 회장(25회)은 “박종찬 회장이 여러가지 일로 바쁘건데 이렇게 챙겨주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인사말을 한 후 “아직 동창회가 없는 지구에 빠른 시일 내에 지구동창회를 만들어 활성화하면 한

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임무홍 회장은 “직능별 동호회에는 다양한 기수가 참가하니 동호회를 이용하면 조직 확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창회 활성화 방법을 제시했다.

조선 남부산지구 회장(34회)은 “각 소모임 동창회 회장을 후배기수가 맡으니까 선배님들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선배기수들이 회장을 맡아 많은 동문들이 모임에 참석하게 하는게 맞다”고 또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참석자들간에 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끝나고 박종찬 회장이 올해 남은 동창회 차원의 큰 행사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기별야구대회는 지난해까지 주최를 해 오던 경야회에서 주최권



부산지구동창회 회장 및 국장 초대모임이 지난 7월19일 서면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을 반납해 올해부터 주최는 총동창회가, 주관은 경야회와 덕형리그가 하는 것으로 정리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문열 덕형리그 회장(29회)을 준비위원장에, 박상국 경야회 회장(33회)을 부위원장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기별야구대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창회관 건립 기금모금에 올인하겠다”며 “반드시 동창회관을 만들겠다”

고 재차 확인했다.

이날 임무홍 중부산지구동창회 회장이 각 지구별 회장 및 국장단 모임을 분기별로 하자고 제안해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 후 첫 모임을 중부산지구 동창회에서 주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덕형리그임장섭 사무국장(36회)이 덕형리그대마도 원정 게임 후 일본 팀 관계자로부터 받은 정종을 가지고와 참석자들이 본토 시계를 시음하는 기회를 가졌다.

첫 게임서 만난 지난해 우승팀 29회와 준우승 팀 33회 “올해 경기 백미”

기별야구대회 조추첨 8월16일 열려

경남중고등학교 50주년 기별 야구대회 2차 대표자 회의 및 조 추첨이 지난 8월16일 경남중고 총동창회 주최 경야회, 덕형리그 주관으로 동구 초량동 블레어 하우스 웨딩홀에서 열렸다.

백홍문 경야회 사무국장(33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은 “총동창회내 소그룹 모임에서 회원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단체가 경야회와 덕형리그”라며 “동창회의 발전과 융합을 위해 이 단체가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박 회장은 “지난해까지 기별야구대회를 경야회가 단독으로 주관하고 주최했던 행사를 50주년을 맞아 주최는 총동창회가 하고 주관은 경야회와 덕형리그가 하기로 했다”며 “50주년을 동창회의 축제로 개최하려고 하니 각종 이벤트와 선물 확보 등으로 지금까지 대회에 소요됐던 예산의 3배 이상인 3,800만원이 필요해 총동창회에서 주최를 하기로 했다”고 주최자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50주년 기별야구대회 이문열 준비위원장(29회)은 “오늘 모임은 조추첨 후 경기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모였다”며 모임의 목적을 설명한 뒤 대회일정은 말했다.

오는 9월29일 첫경기를 시작으로 10월 20



기별야구대회 2차 대표자 회의 및 조추첨이 지난 8월16일 부산역 옆 블레어 하우스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일 토요일에 결승전을 치르기로 했다는 것. 입장식은 10월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그리고 이문열 회장은 “기별야구대회 참가 기수는 19회부터 52회까지 하기로 했으나 일부 기수가 선수구성 등으로 불참을 하게돼 어렵다”며 “동문들의 한마당 축제로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입장식에는 야구원로인 박영길 동문과 부

산시장이인 오거돈 동문 등 유명인사 동문들을 초청하겠다”며 “특별 선물 및 상품 행운권 추첨을 통해 TV 등 다양한 협찬품도 준비하고 있고, 최다참가상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행사인 만큼 대회규정을 숙지해 페어플레이와 안전한 행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박상국 준비 부위원장은 “50주년 기별 야구에 대한 모든 규정과 진행 사항은 이쉬

운 점이 있어도 올해는 현재 정해진대로 진행 하고 모자란 점은 다음 대회때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경기의 가장 백미는 첫 게임에서 불게 된 지난해 우승팀인 29회와 준우승 팀인 33회의 경기. 이 경기는 9월29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식사가 이어졌고 2부 시작과 함께 조추첨 및 대회규칙 설명이 있었다.

박종찬 회장 - 기별야구대회 대회사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로 기억에 남는 행사될 것 선후배간 소통과 융합의 기폭제 만들고 싶어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
기별야구대회를 개최한 지 50주년 되는 해가 제 입기 중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세기란 의미가 주는 부담감과 무게감이 있지만 동문회의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50주년 행사가 진행된다면 얻는 것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의 명칭을 기별야구 50주년 동문 한마당 축제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예전에는 야구부 출신으로만 구성된 경야회가 주최하고 주관은 하였으나 특별히 올해는 총동창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주최를 하고 주관은 기존의 경야회와 기수별 아마야구동호회로 구성된 덕형리그가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된 예산을 편성해서 풍성한 행사가 되게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선후배동문들의 협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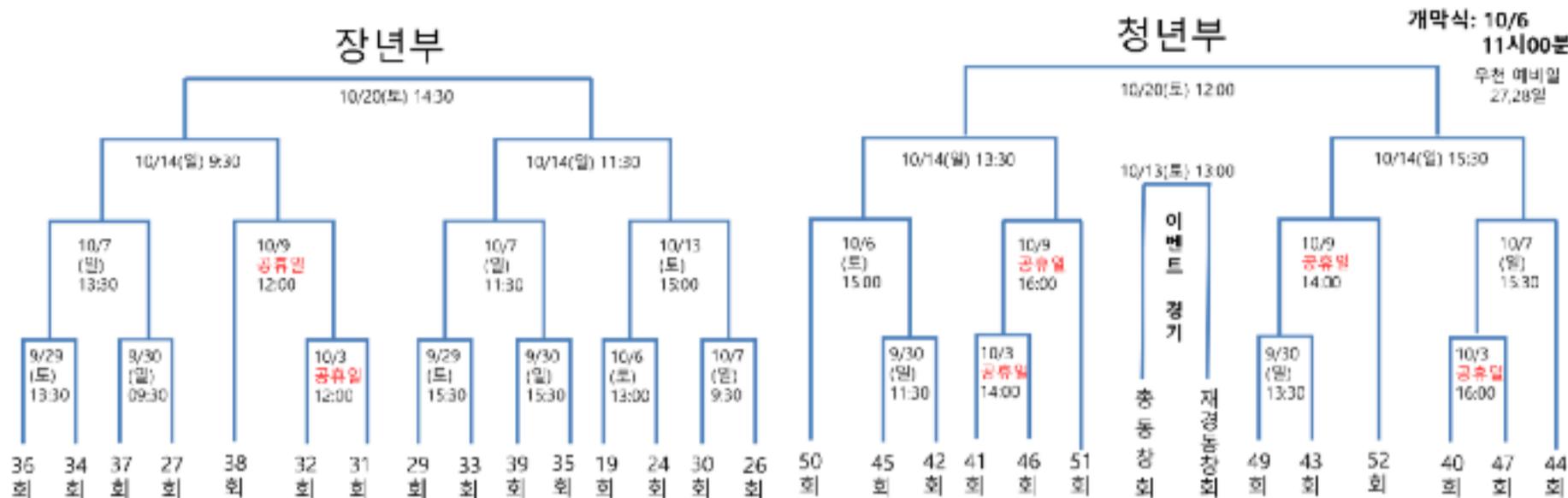
기증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소 야구를 사랑하고 직접 몸으로 즐기는 동문들뿐만 아니라 바쁜 생활 때문에 야구에 관심이 덜한 동문들까지 야구명문 중고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번 행사축제에 참가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축제답게 다수의 이벤트와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참가자들에게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대부분 가장들인 동문들에게 모처럼 희열을 주는 기회를 만들었으니 가족과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당축제를 축하하고 같이 즐기기 위해 재경총동창회와 친선시합을 10월13일 가지게 되어 더욱 뜻 깊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동문들이 꽤 많지만 이번 모교 행사를 전국에 걸쳐 있는 선후배간의 소통과 융합을 확대하는 기폭제로 만들고 싶습니다. 소통과 융합을 통해 멘토가 되는 선배들과 따르는 후배들이 많을수록 동문회는 더욱 발전하고 살아 숨 쉬는 것입니다. 소통은 밴드나 동창회보를 이용하면 가능하지만 융합은 동호회나 직능회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별야구대회가 주는 의미는 특별한 것이며 이번 50주년행사를 통해 기별야구대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마당축제를 준비한다고 수고하신 덕형리그 회장인 29회 이문열 준비 위원장과 경야회 회장인 33회 박상국 부위원장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기별야구대회 대회 규정

- 가. 출전팀 구성
 - 단일팀 : 제19회부터 제52회까지 단일팀 구성
 - * 청 · 장년부 분리 결승 · 수상(장년부 : 19회~39회, 청년부 : 40회~ 52회)
- 나. 경기규칙
 - (1) 선수자격
 - 모교를 졸업한 동문 및 용마자녀
 - (2) 대진방식
 - ㄱ) 전 게임 토너먼트 빅다운제(월드게임제 있음, 5회에 10점 차이 6회에 7점.)
 - ㄴ) 대전 회수는 연합팀 5회전, 단일팀 7회전을 원칙으로 하며, 양팀 합의하여 조정 가능함
 - ㄷ) 핸디는 2~3회 1점, 4~5회 2점, 6~7회 3점, 8~9회 4점, ... (계속)
 - ㄹ) 감독이 한 이닝 중 피쳐 플레이트에 2번 나오면 투수를 교체하여야 함
 - ㅁ) 감독이 한 게임 중 3번 이상 타임을 걸면 한 선수를 교체하여야 함
 - ㅂ) 만일 경기도중 일몰, 악천후 등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때는 합의에 의해 추첨 (각 팀 5명씩) 또는 순연으로 처리함
 - ㅅ)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추첨(각 팀 5명씩)으로 승부를 결정함 *4강부터 순연함
 - ㅇ) 각 팀은 경기 1시간 전에 대기하고, 대전 시간으로부터 15분이 경과되어도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패 처리함
 - ㅈ) 공은 본부서 제공한다.
 - ㅊ) 제19회~39회까지 동문2세의 출전이 1명에 한해 가능하며 투수 · 포수는 할 수 없음
 - ㅋ) 각 팀은 용구를 자체 조달하고, 금속으로 된 스파이크는 절대 신을 수 없음
 - (3) 선수 출신 규제와 상벌기준
 - ㄱ) 재학시절 정규선수는 제40회 이후 출전팀의 투수가 될 수 없음.
 - 제24~39회 출전팀은 40주년 행사 이후에는 정규 선수 인원 및 투수 제한 없음. 그 외 정규 선수는 2회이상 투구 할 수 없음
 - ㄴ) 재학시절 정규선수 출신은 한 게임에 출전팀은 3명까지 출전할 수 있으며, 교체할 수 있음(40주년 이후 제한없음)
 - ㄷ) 타격상 대상은 준준결 진출 10타석이상이며, 정규선수 출신은 제외 함
 - ㄹ) 어필은 감독에 한하고, 부정선수 발견 때는 게임 몰수함
 - ㅁ) 심판 판정에 이유 없이 불복하거나, 폭언과 불손한 태도로 경기질서를 깨뜨리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퇴장시킴
 - ㅂ) 각 팀은 경기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경기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당해 팀은 동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승복하여야 함

기별야구 50주년 동문 한마당 축제

50주년 기별야구대회 대진표



- 9월 29일 Start
 - 10월 3일, 9일 공휴일 경기 진행
 - 10월 6일 개막식 11시
 - 10월 13일 이벤트 경기 1시
 - 10월 20일(토) 폐막식 (우천 예비일 : 27,28일)
- 기별야구 준비위원장 **이문열 (29회)**
부위원장 **박상국 (33회)**

기별야구 50주년 동문 한마당 축제

2018년 9월 6일 현재 기준			
	기수	이름	금액(만원)
현금 후원	19	남진현	100
	22	박재삼	100
	25	박종찬	500
	25	송정규	100
	25	김종현	50
	25	김상수	50
	27	김대우	50
	29	이문열	100
	29	김종권	100
	29	권오영	50
	29	이선규	50
	30	윤성덕	50
	31	김종태	50
	33	김병영	50
	33	박상국	50
	33	박수현	50
	36	김경곤	60
	38	김원형	10
	38	박두만	10
	41	전삼복	20
	42	정용준	20
	44	안병규	20
49	최진영	50	
49	이충현	50	
49	김일권	50	
49	조형래	10	
49	재민진	10	
49	하성우	10	
51	미현승	20	
	22회 동기회	20	
	40회 동기회	100	
	남부선지구	20	
	덕영리그 12팀	120	
	목사가	30	
	총액	2,130	
물품 후원	27	유영호	소수20박스(400명) 매실주20병(25년산)
	34	김종근	52인치 LED TV 1대
	36	이희수	해문대 경북공 2인 식사권
	39	김병기	프린터 1대
	43	강병규	생략 300명
	43	김영희	남내 목욕 가운 1매씩
	43	김종순	누진면석렌즈 1세트
	49	배승한	여행용 캐리어 2개
	50	서석진	스탠드 4개
	51	박보순	소이캔들 5개
	52	김태현	양치소금 3매짜리 3세트
52	한승현	도시 민박숙박권(49팀씩)	

〈1면에 이어서〉

현실직시를 기반으로 선후배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융합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2명의 대령을 배출한 경남중고 역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을 확실한 우리들의 영원한 자부심으로 만듭시다. 성공하신 선배님들, 기부결정권을 가지고 계실 때 모교의 본토에 동창회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갑을 열어 주십시오. 20억 구입자금 마련에 동참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후배들에게 귀감이 된 사실을 동판에 새겨 이름을 길이 남기겠습니다.

동창회관 구입의 필요성을 다시금 정리하면 명문으로 자긍심을 갖게 하며 은행이자 낮아진 장학금의 효과적인 활용수단이 되며 연로하신 선배님들의 기증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창회관의 위치가 서울이 좋겠습니까 부산이 좋겠습니까 입니다. 저는 당연히 경남중과 경남고가 있는 부산이 정답이라는 확신을 믿습니다. 70억 정도 학교발전기금을 가진 재경동창회 임장에서 서울에 동창회관을 가지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집행할 돈을 가진 지역에 회관을 가지 것이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지역 대학교로 진출하는 졸업생이 매년 15명 정도로 볼 때 10년 20년 뒤에는 꽤 많은 선배님들이 작고하시고 적은 수의 동문만이 찾는 회관이 될 것임을 삼척동자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대신 부산에 있는 총동창회관에는 해외, 재경동문들은 물론이고 끝없이 배출되는 동문들이 가족들과 손잡고 방문해서 학창시절 얘기, 막강했던 고관대작 선배님들 얘기, 경제계 학계 거물급 선배님들 얘기, 기념비적인 동문 역사 얘기, 야구역사 얘기 등 얘기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동문회도 약 100억 이상 기금을 한 계정으로 묶은 부산고 동문회처럼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난 2월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방문 때 재경에서 모이든 기존 약 70

억에 대해서는 손 벌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총동창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학금 16억3천, 발전기금 12억6천 총액 약 29억에 동창회관 구입 목적성 20억 기금을 기부 받고 있는 중이며 선후배님들의 가치적인 동참(현재 12번)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재경 선배님들의 기부동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숙원의 총동창회관을 꼭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저의 적극적인 회관구입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서울에만 재경동창회관이 있고 모교가 있는 부산에 총동창회관이 없는 우스꽝스러운 기형적인 동문회로 남는 상황입니다. 모래알이 아니고 황토흙 같은 동문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동창회는 경남고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중도 꾸준히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바 경남중만 졸업한 동문들도 총동창회관 구입 기금 마련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꿈꾸고 있는 총동창회관 모습을 그려봅니다. 구입금액 약 45억, 멋진 간판 달린 5층 건물, 지하철역에서 도보 7~8분 거리 역세권 위치(중앙동, 서면, 연산동, 남천동, 수영, 해운대 중 택일), 1층 복도 벽면에 3천만 원 이상 고액기부동문들 동판 부착, 1층 수익형 커피숍, 2층과 3층 수익형 임대 사무실, 4층 사무국, 회의실, 후배용 창립사무실 저렴한 대여 공간, 5층 선배님들 기증품 전시를 포함한 역사관, 여유 공간이 있으면 수익형 당구장.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후라 경고! 나가자!

◇추신: 타계하시는 선배님들이 차츰 많아지는 현실에서 선배님들의 모교 관련 유품을 기증받아 역사관에 전시를 해서 후배들이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느끼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기증의사가 계시는 선배님은 총동창회사무국(사무국장: 36회 신승렬 010-5224-1884)으로 연락을 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고혹적인 부산야경과 와인이 함께한 ‘요트위 동창회’

파워요트 3대로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광안대교 왕복

아주 특별한 곳에서 아주 특별한 형태의 동창회가 열렸다.

해운대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경남중고 해운대지구 동창회’ 7월 월례회가 지난 7월24일 오후 7시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에서 박종찬 총동창회장장과 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동창회장 등 7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요트경기장 내 성화대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후, 참가자들이 파워요트 3대에 나눠타고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출발해 광안대교를 거쳐 광안리 앞바다를 돌아 부산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야간크루즈’ 투어로 참석자들로 부터 좋은 기획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요트에 탑승한 동문과 가족들은 마린시티의 고층건물과 광안대교의 찬란한 조명이 환상적이었다며 모두 입을 모았다.

한 동문이 요트위에서 “홍콩야경이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광안대교에서 바라본 마린시티의 야경은 홍콩은 짝도 안되고, 세계 제일”이라고 하자 모두 맞는 말이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리고 몇몇 동문들은 요트 한켠에 삼삼오오 모여 달빛이 바다위에 어리는 고혹적인 광안리 앞바다에서 야경을 보고 와인 잔을 기울이며 여름밤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갔다.

그리고 모두 사진찍기에 바빴다.

야간투어를 마친후 박종찬 총동창회장장을 비롯해 남진현 지문위원장(19회), 김대욱 분과위원장(29회)과 후배기수 30여명이 마린시티 안에 있는 B비어에서 맥주로 여름밤의 열기를 식혔다.

이 자리에 경야회 박상국 회장(33회)과 이충원 고문(29회) 등 경야회 집행부 4명이 참석해 함께 했다.



해운대지구 동창회 7월 월례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요트에 탑승하기 전 수영만 요트경기장 성화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2차 맥주집에서 청구된 계산서는 김대욱 분과위원장이 계산했다.

33회와 41회 등 일부 참가동문들은 동끼리 따로 뒷풀이를 했다고 한다.

이번 행사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파워요트 3대로 요트 운송업을 하고 있는 (주)브라보 요트 김승일 회장(38회)과 김승원 대표(41회)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참석자(호칭 직위 생략)

배대걸, 윤기갑(13회) 김화옥(14회) 김사권, 서부원, 하영일, 천두갑(18회) 남진현, 노태규(19회) 강부덕, 금석주(20회) 전상대, 김영기, 이상수, 박재호(23회) 김인규(24회) 박종찬(25회) 송희태, 김대욱, 김근덕, 양승오(29회) 이원경(30회) 김성원, 공종렬(31회) 이석희, 이호인, 유희철, 김상욱, 장정석(33회) 이성엽, 김두섭, 최해협, 박철웅(34회) 안종엽(35회) 정윤희, 신



요트에 탑승한 동문들이 삼삼오오 모여 부산 밤바다를 즐기고 있다.(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승렬, 임창섭, 이동희, 윤경준과 딸 2명(36회) 김승원(41회) 김성수(43회) 조영호(44회) 전주수(47회) 이우준, 박치욱, 정재우, 황국현(50회) 박보순(51회) 문희규(53회) 김승일(38회) 박용한, 윤원욱(39회) 이양걸, 문상현, ◇찬조: 권두성 50만원(38회)

남구청장 퇴임 이종철 동문에게 감사패 전달

남부산지구동창회 7월 모임

남부산지구 동창회 7월 모임이 지난 7월18일 오후 7시 부경대 뒷문에 위치한 ‘남남식당’(32회 박종우 동문 운영)에서 조선 남부산지구 동창회 회장(34회)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18대, 19대, 20대 부산 남구청장직을 12년동안 역임하고 퇴임한 이종철 동문(16회)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53회 문희규 동문과 54회 고지현 동문이 처음으로 참석해 선배들로 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조선 회장은 “남부산지구동창회가 타 지구 동창회에 비해 아직 초보단계에 있지만 16회부터 54회까지 참석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동창회라 자부한다”며 “후배들이 참석하는 것을 보니 남부산지구 동창회가 더욱 발전할수 있는 희망을 불수있었다”고 말했다.

모임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인근에 있는 맥주집에서 2차를 하면 선후배의 정을 나누었다. 2차비용은 조선 회장이 전액 부담했다.

◇참석자: 이종철(16회) 남진현(19회) 최재환(25회) 김종명(29회) 김태홍, 박종우(32회) 김종만(33회) 조선(34회) 정윤희 박진용 신승렬(36회) 최재식(37회) 박용한 김정락 이상학(39회) 한수열 배병훈(40회) 정용중 박동식(42회) 김경진 박중현(44회) 문희규(53회) 고지현(54회)

◇찬조: 남진현 20만원, 김종명 30만원



남부산지구 동창회가 지난 7월18일 부경대 뒷문에 위치한 ‘남남식당’에서 열렸다.

오거돈 시장과 함께 한 사하지구 동창회 견기대회

경남중고 사하지구 동창회가 주최한 ‘동문과 함께 봄 여행 걷기’ 행사가 지난 5월 26일 오전 10시 낙동초등학교 정문앞에서 최승호 사하지구 동창회 회장(36회)과 박종찬 총동창회장, 오거돈 부산시장(21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등 동문과 가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낙동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승학산 산나물숲 길을 따라 꽃 마을까지 이어지는 1시간 30분 가량의 산책로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승학산의 굽어진 산책로를 따라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걸어가며 이야기 꽃을 피우며 최종 목적지인 예천집에 도착했다.

예천집에서 늦게 합류한 오거돈 시장의 멋스러운 노래를 들으며 식사를 마치고 족구대회를 끝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족구대회 우승팀인 36회는 우승 상금 30만원을 사하지구 동창회 발전에 보태 달라며 기부했다.



지난 5월26일 열린 사하지구 동창회가 주최하는 ‘동문과 함께 하는 봄 여행 걷기대회’에 참가한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풍과 비바람 속에서 열린 동래·금정 동창회

‘경남중고 동래·금정 지구 동창회 7월 월례회’가 지난 7월3일 오후 6시30분 동래 온천장 ‘송가정 갈비 밀면’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강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35명이나 참석해 동문들의 정을 과시했다.

참석한 동문은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과 옥동훈 총동창회 사무총장, 이상화 동래·금정 지구 동창회 회장(25회)을 비롯해 정은희 해운대 지구 동창회장, 최승호 사하지구 동창회장(36회) 등 타 지구 동창회 회장단 등이 축하차 참석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동래·금정지구 동창회기’ 전달식이었다.

박종찬 회장은 이상화 회장에게 동래·금정 지구 동창회기를 전달하면서 “동래·금정지구 동창회가 출범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상화 회장과 이문열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의 노력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곧 다른 지구동창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창회가 될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넸다.

식사가 끝난 후 박정민 사무국장(38회)의 사회로 회의가 시작됐다.

박 국장의 간단한 소개와 인사가 끝나고, 이상화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태풍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줘 감사하다”며 “경험많은 선배님들과 한창 활동하는 후배들이 합심해 발전해 나가는 동래·금정지구 동창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문열 수석부회장은 “동래·금정지구 동창회가 창립한지 2달밖에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미비하다”며 “오늘은 동래·금정지구 동창회의 축제의 날이다. 많이 도와주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기수별로 돌아가면서 각자 소개를 했다.



지난 7월 3일 열린 동래·금정지구 동창회에 태풍을 뚫고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이날 참석자 중 38회가 9명이나 참석해 최다 참석자 수를 자랑했다.

특히 이날 연을 만드는 인간문화재인 배우 삼동문(19회)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1차 모임이 끝나고 20여명의 동문들은 바로 옆에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뒷풀이를 했다. 사정으로 1차 모임에서 동창회기만 전달하고 다른 약속장소로 갔던 박종찬 회장이 이수영 동문(25회)과 함께 뒤늦게 합류했다.

뒷풀이에 남은 동문들은 이수영 동문이 가지고 온 조니워커 골드와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찬조 (무순): 이상화(25회) 100만원 배무삼(19회) 5만원 김기열(23회) 5만원 박종찬(25회) 30만원 남진현(19회) 10만원 김상수(25회) 50만원 해운대 동창회 10만원 사하지구동창회 10만원 이수영(25회) 조니워커골드



지난 7월 3일 열린 동래·금정지구 동창회에서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이상화 동래·금정지구 동창회 회장에게 동창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중부산지구 동창회 등산 및 체육대회 개최

‘경남중고 중부산지구 동창회’는 지난 7월7일 ‘등반대회 및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서·동구 국회의원이인 유기준동문(32회)과 윤중서 중구청장(46회)이 내빈으로 참석했고, 임철호(24회)전 중부산지구 동창회장, 임무홍 중부산지구 동창회장(25회), 이영학 중부산지구 동창회 수석부회장(26회), 최상원(19회), 강창수, 윤승근(21회) 고문 등 동문과 가족 80여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모교인 경남고 정문앞에 모여 일부는 엄광산 정상까지 등반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대신공원 편백숲 힐링 신책코스를 경유해 구덕산 청소년야영장 안에 있는 체육공원까지 한 시간 거리를 걸었다.

두갈래로 나누어 등반을 한 참가자들은 이날 낮 12시 쯤 체육공원에 모두 도착, 집행부에서 준비한 수육과 해산물을 포함한 푸짐한 음식으로 식사를 함께하며 선후배간 친교의 시간을 나누었다

임무홍 중부산지구동창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집행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소개가 끝나고 식사 중 32회 유기준 국회의원이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식사가 끝난 후 2부행사로 체육대회가 열렸다.

홀수·짝수기수 두팀으로 나누어 ‘쿠쿠밥솥’을 걸고 친선 족구시합을 벌였는데 홀수 기수가 2대1로 역전승, 43회 강상훈 동문의 부인에게 쿠쿠밥솥이 부상으로 돌아갔다.

이어진 경품추첨 시간에는 지난 6.23 지방선거에서 부산 중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된 46회 윤중서 동문이 추첨을 했다.

경품 추첨이 끝나고 교가제창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 참석자 최상원(19회) 윤승근(21회) 임철호(24회) 임무홍 서보민 장세훈(25회) 이영학(26회) 안풍(28회) 정순길(30회) 서동균(31회) 송승익(32회) 안영훈(33회) 오문세 손기철(35회) 김종오 김한교 박용철 김창일 성귀호 이선우 조성영 전영목 차동엽 이상준 박재운 심종환 오영재 김경찬 김창현 조경호(36회) 손봉상 김형권(37회) 노재완 박이현(38회) 안승진외 5명(39회) 이정삼(40회) 성찬기 김득수(41회) 김현오



‘경남중고 중부산지구 동창회’는 지난 7월7일 ‘등반대회 및 체육대회’를 가졌다.

(42회) 박형규 이진배 김영휘 김준근 고양렬 강상훈 김수민 김진규 이재웅 장시호 심문섭 심현섭 주용준 이현호 박승삼 배진국 강병규 오일남 허재원(43회) 전성백(44회) 육한수 윤종서(46회) 정하운(47회) 최유탄 노성욱(49회) 양현진(54회) 서진석(56회) 이호규(65회) 양재혁(69회)

◇ 찬조 무순 강창수(21회) 고급명란젓 10박스 정순길(30회) 최고급가정용 휴대용LED후레쉬20개 서동균(31회) 20만원 류명석(31회) 고급와이셔

츠 20벌 오문세(35회) 20만원 손기철(35회) 10만원 김종오(36회) 10만원 성귀호(36회) 양주 17년산 1병 맥주5병 20만원 쿠폰1장 박이현(38회) 300만원 상당 식권 및 물품 김득수(41회) 맥주캔(20만원 상당) 김영휘(43회) 기념타올(30만원 상당) 강병규(43회) 고급생탁 60병 허재원(43회) 국산 최고급참기름 50병 육한수(46회) 고급떡(10만원상당) 권명준(비동문) 소주3박스 임철호(24회) 20만원 최상원(19회) 10만원 임무홍(25회) 60만원 윤승근(21회) 20만원 장세훈(25회) 10만원

호치민지역 동창회, 총동창회 집행부 방문에 '환대'

경남중고 총동창회 박종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지난 7월6일부터 3박4일간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지역 동창회'를 방문했다.

'호치민지역 동창회' 방문은 경남중고 총동창회 밴드개설 이후 박종찬 회장과 이석호 호치민지역 동창회 회장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져 성사됐다.

방문단에는 박종찬 회장을 비롯해 옥동훈 사무총장 오양득 운영위원장(25회) 김대욱 재정분과위원장 박성철 법률분과위원장(29회) 신승렬 사무국장(36회) 윤경만 문화분과위원장(38회) 이상걸 기획분과위원장(41회) 등 8명이다.

총동창회 집행부가 방문하자 호치민지역 동창회에서는 7월 정모와 더불어 환영행사를 진행, 총동창회와 호치민지역 동창회의 발전을 도모했다.

◇호치민지역 동창회 참석자

박철완 고문(20회) 이석호 재호치민지역 동창회장(25회) 조일래 운영위원(30회) 김성준 부회장 옥동훈 사무총장(33회) 김태원 변기열(38회) 정진훈 사무국장(39회) 김영수(40회) 신창훈(41회) 이정훈 부사무국장(52회) 임완영(33회 출장 중 참가)



총동창회 집행부가 지난 7월6일부터 3박4일간 호치민지역 동창회를 방문했다. <사진=호치민지역 동창회>

총동창회 집행부와 상해지역 동창회장 '상견례'

총동창회 집행부와 상해지역 동창회 박창주 회장(34회)과의 만남이 지난 6월21일 오후 7시 남구 민락동 수변공원 옆 '용마횃집'(31회 김대식 동문 운영)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박종찬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옥동훈 사무총장(25회), 류명석 부회장(31회), 신승렬 사무국장(36회), 김태호 IT분과위원장(38회), 윤원욱 편집위원(39회) 등 총동창회 집행부 8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박창주 상해지역 동창회장과 34회 동기생인 김인철 이용희 김중근 옥재명 동문 등 5명과 전 재경동창회 사무총장이었던 정아준 동문(33회)이 박창주 회장과의 개인 인연으

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 특별게스트로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박창주 회장은 상해지역 동창회의 운영방안과 동문들의 근황을 소개하고, 박종찬 회장의 총동창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만족을 표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박창주 회장 등 동기들은 모임을 마치고 인근 호프집에서 이성엽 동기가 합류해 늦은 밤까지 맥주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쌓인 회포를 풀었다.

용마횃집에서의 비용은 박종찬 회장이 부담을 했다.



총동창회 집행부와 상해지역 동창회 박창주 회장 간의 상견례가 지난 6월21일 민락동 수변공원 옆 용마횃집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0회)>

박종찬 회장 북가주지역 동창회 방문 '원로'와 환담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지난 8월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서울가든식당에서 북가주지역 동창회 동문들을 만나 최근 동창회와 고국 소식을 전했다. <사진=박종찬 총동창회장>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지난 8월9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서울가든식당'에서 북가주지역 동창회 소속 박병호(11회) 정조웅 김철규(14회) 전승일(15회) 정갑식(21회) 동문들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최근 동창회와 고국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날 만남은 박종찬 회장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거주하는 딸 집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다 북가주지역 동창회에 연락을 해 이루어졌다.



문명자 : 허대용(경남고28회) 010-3858-9022

신선함과 활력이 더해진 김해지역 동창회

김해지역 동창회 8월 월례회가 지난 8월 14일 오후 7시 김해시 삼문동 팔딱활아구(53회 전학수 동문 운영)에서 최연삼 회장(28회)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월례회에는 신입동문 5명이 참석해 신선함과 활력이 더해진 자리였다.

◇참석자

윤대희(21회) 이상운 김영기(23회) 최연삼(28회) 차의수 박광수 박준모 한양섭(29회) 이광희(30회) 황성철(31회) 최호영 양문성 배종찬(32회) 박법규(33회) 노태진 정희태(34회) 최민석(35회) 김규선 박형출 김용진(36회) 김기덕(37회) 정재형(38회) 손옥명 이기 이남주 장갑구 손균호 김춘강(40회) 전세준(43회) 조영호(44회) 이상현(45회) 전학수(53회)

◇찬조

김영기(23회)식대 100만원 최민석(35회) 7만원 김규선(36회) 30만원 상당 주대



지난 8월14일 열린 김해지역 동창회 8월 월례회에서 최연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해지역 동창회)

양산지역 동창회 월례회 '기대' 속에 열려



양산지역 동창회 월례회가 지난 7월18일 화림초밥에서 열렸다. (사진=양산지역 동창회)



지난 7월7일 개최된 김해지역 동창회 바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바둑을 두고 있다. (사진=김해지역동창회)

김해지역 동창회 바둑대회 김용진 동문 우승

제3회 경남중고 김해지역 동창회 바둑대회가 지난 7월7일 오전 10시 경남 밀양시 무안면 차의수 김해지역 동창회 수석부회장(29회) 별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최태환 동문(13회) 등 모두 15명이 참가해 바둑 실력을 겨루었다.

이날 우승은 김용진(36회) 사무국장이, 준우승은 차의수(29)수석부회장이 차지했다.

그리고 3위 최호영(32)부회장, 4위 최태환(13)동문, 5위 김규선(36)부회장, 6위는 한양섭(29)동문에게 돌아갔다.

◇참석자

최태환(13회) 이상운(23회) 최연삼(28회) 차의수 부부 한양섭(29회) 김동욱(30회) 황성철(31회) 최호영(32회) 김용진 김규선 장정재(36회) 조영호(44회)

◇찬조

최태환(13회)시바스리갈 18년산 1병 최연삼(28회) 사케 1병 차의수(29회) 10만원 최민석(35회) 숙박권 3매 김규선(36회) 편백 주방용 도마 5개

경남중고 양산지역 동창회 7월 월례회가 지난 7월18일 오후 6시 화림초밥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박경수 양산지역 동창회장에게 양산지역 동창회기를 전달했다.

박경수(31회)회장은 "다시 부활한 양산지역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동문들을 발굴해 모임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

박경수 김석기 한영오(31회) 공진환(33회) 배성호 서성수(35회) 박원 이양배 구동주(38회) 하순호(39회) 이준석 최병호(41회) 윤상훈(44회) 박종현(50회) 고훈(54회)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만남 7월 월례회가 지난 7월12일 오후 해운대구 마린시티내에 있는 블루키친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지방선거 끝났으니 동문들간 갈등해소해야”

우리들의만남, 지방선거승리·고위직 영전 동문 초청

‘용마가 간다’ 우리들의만남 7월 월례회가 지난 7월12 오후 7시 해운대구 마린시티내에 있는 마리나센터 4층 블루키친에서 박종찬 총동창회 회장 등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지난 6.2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동문들과 공사 고위직으로 영전한 동문들을 초청해 축하를 하는 자리였다.

노기태 강서구청장(20회)과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25회) 등이 참석해 축하를 받았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바쁜 일정으로 참석을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재철 우리들의만남 회장(30회)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서 선거에서 승리한 동문들과 공사 고위직에 임명된 동문들을 초대해 축하를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임 초기 바쁜 와중에 참석해 준 노기태 황호선 두 동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문들 중 승자와 패자를 남겨 놓아 동창회도 생채기가 남겨졌다”며 “이제는 손을 잡고 갈등을 해소하고, 영광을 이룬 자랑스런 동문들에게 축하를 한다”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동문들과 영전한 동문들의 소개와 인사말이 이어졌다.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우리들의만남 주최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줘 고맙다. 처음 강서구청장에 당선돼 지난해 3월 당을 더불어 민주당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 일부는 욕하고 일부에서는 잘했다고 하더라”며 “그러나 이렇게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점을 잘 치느냐고 하더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이어서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동문들과 협심해 침체된 해운산업과 조선기자재 산업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책무에서 사장직을 맡게됐다”며 동문들의 도움을 부탁했다.

이어서 노기태 청장과 황호선 사장 등 3명에게 축하의 꽃다발이 전달되고 박종찬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박 회장은 “살아 오면서 내가 복이 많다는 느낌을 받는데, 특히 오늘 그것을 다 느낄 수 있다”며 “선거에서 당선된 동문들을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동창회가 직면한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취임 후 큰 돈과 작은 돈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큰 돈은 동창회관 건립 기금이고, 작은 돈은 동창회보 구독료 3만원”이라며 “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동문들이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규정 덕경회 회장(16회)은 축사를 통해 “지방선거 때 승리한 동문과 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임명된 황호선 동문 등 중책을 맡은 동문들은 본인의 영광이지만 동문들에게도 자랑이다. 이들을 우리 동문들이 지원하고 아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선거기간 동문들의 운신 폭이 좁았지만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직책을 맡은 동문들에게 지원을 보내자”고 부탁했다.

이어서 “박종찬 회장이 새로운 마인드로 동창회 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은 재정적인 면도 있지만 참여가 최고”라고 동참을 독려했다.

이용흠 총동창 고문(19회)도 축사에서 “오늘 모임을 통해 그동안 자주 보지 못하던 동문들을 만나보게 되어서 반갑다”며 “동창회보의 중요성을 회장을 할 때 많이 느꼈다. 그런데 벌써 많은 동문들이 구독료를 납부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의 소개 후 모임이 막을 내렸다.

◇참석자 : 차영일(13회) 신현호(14회) 송규정(16회) 이용흠 남진현 이준만(19회) 노기태 강



우리들의만남 7월 월례회에 참석한 박종찬 회장과 이용흠 고문 등 원로동문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우리들의만남 7월 월례회에서 노기태 강서구청장과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축하의 꽃다발을 받았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부덕 허주한(20회) 허범도(22회) 백창영 김태용 전상대(23회) 광두희 박창호(24회) 박종찬 황호선 임무홍 양병준(25회) 박종국 조만석(26회) 김안석(27회) 양승오 박성철 최종열 최영식(29회) 정해석 김재철(30회) 안민 김성원 최동식 배정우 최상규 박종규 박종호 최효식(31회) 이석희 박명진(33회) 김중근 이성열 황종명 이용희(34회) 정지원(35회) 정윤희 박재

운 임창섭 김종오 박진용 손광성 차동엽 이창신승렬(36회) 김태호 강병균 김성호 김승일 박이현 강금성(38회) 안승진 윤원욱(39회) 전삼록 이양걸(41회) 송정렬 황성표 김진호(42회) 김종식 여정섭 허재원 김영희(43회) 조창현 조진현(44회) 서영우(47회) 최유탄 이원준(49회) 김영동 서석진 김석훈 황국현(50회) 박보순(51회) 송승윤(53회) 김형윤(58회)

언론인클럽, 오랜만에 ‘시끌벅적’

경남중고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언론인클럽’ 6월 월례회가 지난 6월26일 오후 7시 남구 민락동 수변공원 옆 용마횃집에서 열렸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을 해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모임이 치러졌다.

이날 모임에는 박종찬 회장과 남진현 자문위원장(19회), 신승렬 사무국장(36회) 등 총동창회 집행부와 조선 언론인클럽 회장(34회), 정윤희 사무국장, 이만수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28회) 등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의 화두는 당연 ‘지방선거’였다. 동문 중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를 보내기로 했다.

용마횃집에서 모임을 마치고 인근 pub으로 가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이날 호스트는 정윤성 분과위원장(35회)이었다.

2차 비용은 김종명 분과위원장(29회)이 부담했다.



지난 6월26일 남구 민락동 수변공원 옆 용마횃집에서 열린 언론인클럽 모임에서 조선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덕산우회, 유럽최고봉 엘브루즈(5,642m) 등정

지난 2015년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5,895m) 원정 해단식에서 다음 원정지로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5,642m) 또는 남미 최고봉 아콩카구아(6,962m)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2016년 히말라야 다울라기리산군 트레킹, 2017년 이태리 돌로미티 트레킹 및 만년설산 브라이트호른(4,165m) 등반등에 밀려 엘브루즈 원정은 무리한 노획의 'Wish List'에 파묻힐 뻔 했다.

산악반OB 중심의 등산모임인 구덕산우회(회장 태기섭, 27회)는 전국이 펼칠 뚫던 지난 7월 28일 유럽 최고봉 Elbrus 등반에 나섰다.

24회 최원주 동문을 단장으로 안형수(24회), 태기섭(27회), 서민석(30회), 남기태(31회), 옥정원(38회), 김효건(42회) 등 7명의 동문과 울산대산악부 OB/YB 4명이 동참해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고산등반을 좀 한다는 산꾼들은 엘브루즈의 등반성을 문제삼곤 해왔으나, 이는 엘브루즈 등반 인프라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한 바가 크며(상당 구간을 곤도라와 스노캣 활용) 킬리만자로와 비교하면 고소 적응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엘브루즈는 정상부 기상이 변화무상하여 눈보라와 강풍이 몰아치는 White Out(거의 아무것도 볼수없음) 상태에서는 8,000m Summitter도 등반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악천후가 도사리고 있다.

부산과 인천에서 Air China 항공편으로 각각 출발하여 베이징에서 합류, 모스크바로 들어가 공항근처 호텔에서 1박하고 다음날 아침 민보디행 러시아항공편 이용후 3시간여의 미니버스 강행군 끝에 엘브루즈 등반기지인 체스콜(2,300m)에 도착해 호텔에 여장을 풀고 현지 가이드와 미팅후 일부대원의 부족한 장비를 렌탈 후 휴식을 취했다.

3일차인 7월 30일 3,400m 까지 고소 적응 훈련 후 7월 31일 Base Camp 격인 High Camp(3,850m)로 올라가 아이젠, 픽켈 등을 활용한 설상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8월 1일 4,500m까지 설상훈련 및 고소적응 훈련을 실시했으며, 휴식일인 8월 2일에도 가벼운 설상 훈련을 실시한 후 내일의 등정을 위하여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등정일인 8월3일 간단히 요기를 하고 새벽 3시 등정 길에 나섰다. 이틀간 고산증으로 고전하던 대원 한명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하산을 결정하였다.

걱정했던 바와 달리 날씨는 맑고 바람도 크게 불지 않았다.

스노캣 편으로 20여분 오른 후 하차하여 35도 정도의 급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는데 초기에는 호흡이 불편하여 고전들 했으나 스텝과 호흡이 발란스를 잡으면서 서서히 안정되어갔다.

울산대 YB 1명이 고소를 견디지 못하고 5,300m 근처에서 포기하고 보조 가이드를 따라 하산했다.

킬리만자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대원이 대형을 이루어 등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Group Effect로 밀며 끌며 10시 10분경 9명 대원 모두 정상에 올랐다. 힘든 여정이었으나 고진감래는 또다른 등반을 부르고 있었다.

한편 원정대는 엘브루즈 산행후 인근 조지



①유럽 최고봉인 '엘브루즈' 등정에 성공한 구덕산우회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②구덕산우회 엘브루즈 원정대들이 등정을 마친 후 인근 지역인 조지아에서 관광을 하고 있다. (사진=구덕산우회)

아에서 4박5일, 모스크바에서 2박3일 관광 후 귀국하였다.

<기사=최원주 단장(24회)>

경불회, 법계정사서 법회열어

경불회(회장 정영천 21회) 제22차 정기 가족법회가 지난 7월21일 부산시청 부근 법계정사서에서 20여명의 동문 불자와 가족 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는 불국사 승가대학 학감과 교무국장 그리고 템플스테이 연수



경불회 22차 정기 가족 법회가 지난 7월21일 법계정사서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국장인 현학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요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재가불자라도 각자의 수행 근기에 따라 단 일초라도 부처되기를 목표

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마조 도일스님의 "평상심이 도"라는 청정법문을 청해들으며 폭염 속에서도 여법하게 법회를 마쳤다.

생우회, '다물촌'서 정기모임 가져

지난 7월 14일 오후6시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양곱창 집인 "다물촌"(40회 황성현 동문 운영)에서 '생우회' 7월정기모임이 열렸다.

'생우회는 경남 고등학교 생물반출신 선·후배들의 모임이라고 한다.



생우회 7월 정기모임이 지난 7월14일 중구 중앙동 '다물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생우회)

◇참석자 이민우(28회) 고영호(31회) 이진호(32회) 박

태종(33회) 김세정(35회) 이충고(37회) 박용한(39회) 서정민, 황성현(40회)

덕형리그 대마도 원정경기 '요미우리' 신문에 실려

2018 덕형리그 대마도 원정경기가 지난 7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대마도 토요타마 구장에서 열렸다.

덕형리그와 대마도 연합팀 간에 열린 이 대회에서 평균 연령 56세인 덕형리그가 평균연령 27세인 대마도 연합팀에 7대3으로 아쉽게 패배했다.

지난해 1월 대마시에서 열린 제 1회 대회는 18-0으로 대마도연합팀이 승리했고, 지난해 12월 모교인 경남고 구장에서 개최된 2회 대회에서는 덕형리그가 9대5로 승리했다.

이날 시합에 앞서 이문열 덕형리그 회장(29회)과 대마시연합팀 단장은 지속적인 교류전을 약속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산시와 대마시 차원의 교류를 약속해 참가자들로 부터 우렁찬 박수를 받았다.

한편 덕형리그와 대마도 연합팀 간의 경기 내용이 일본 3대신문사 중 하나인 요미우리 신문에 자세히 소개됐다.



지난 7월14일과 15일 이틀간 대마시 토요타마 구장에서 열린 덕형리그와 대마도연합팀 간의 경기에 앞서 양 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덕형리그>

철 신동훈 오희진 최성환 이수관 손공(38회) 강훈 김신욱(41회) 박준호(43회)
◇찬조 : 박종찬(25회) 30만원 이문열(29회) 100만원 박기찬(29회) 20만원 백수현(33회) 20만원 김경곤(38회) 20만원 한민득(38회) 소주100병 맥주60병 김동근(40회) 20만원

◇참석자

이문열 박기찬 차동열(29회) 백수현 이윤조(33회) 임창섭(36회) 신우진 소수현 박종식 하상용(37회) 김경곤 김문철 서승헌 차정호 김원



일본 3대신문 중 하나인 '요미우리' 신문에 실린 덕형리그와 대마도연합팀간의 대회 기사. <사진=덕형리그>



덕형리그와 대마도 연합팀간 친선경기에 앞서 양팀이 기념품을 주고 받고 있다. <사진=덕형리그>

'격려'말 오고간 용경희 3분기 모임

용마경찰들의 모임인 '용경희' 3분기 모임이 지난 8월1일 서면에 위치한 흥유단에서 열렸다.

회원들이 경찰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업무 때문에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가 힘든데도 이날 휴가중에 참석한 동문이 있는가 하면, 연가를 활용해 참석한 열혈동문들이 많아 최근 들어 가장 많은 23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타청에서 전입해 처음 자리를 한 동문들도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해 서

로 아는 것을 공유하고, 서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법을 건네고 격려를 해주었다.

◇참석자

손기철(35회) 김종렬 박원 정연태(38회) 이정삼(40회) 신지식(42회) 이윤식 조정현(44회) 김용성 양재훈(45회) 권태운(46회) 김도일(47회) 김영동(50회) 김영태 도희종 이건영(51회) 조동구(52회) 문희규(53회) 오상철(54회) 박정민 이육한(55회) 박세근(60회) 노의현(61회)

<기사=이건영(51회)>



용경희 3분기 모임이 지난 8월1일 서면에 위치한 흥유단에서 열렸다. <사진=이건영 용경희국장(51회)>

기독교동문회, '선한 사마리아인의 밤' 성황리 개최

기독교동문회가 주최하는 제4회 '선한 사마리아인의 밤' 행사가 지난 6월28일 오후 6시30분 동구 초량동 협성부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요섭 회장(27회)과 김대현 총무(33회) 등 기독교 동문 42명 등 124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2부 디너쇼에서는 5인조 그룹인 '헤리티지 싱어즈'가 출연, 격조높은 음악으로 참석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기독교동문회는 매년 '선한 사마리아인의 밤'

행사를 열어 여기서 모금된 후원금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된 노숙자들과 독거인에 대한 급식지원과 교도소 재소자 등에 대한 방문 및 후원, 사역물만골 공동체(노숙인 자립 및 재활공동체)에 대한 후원, 모교 중 고등학교에 대한 후배들에게 지원 및 후원을 하고 있다.

한편, 기독교동문회에서는 오는 10월22일 동문 만남의 밤 행사를 개최, 고신대 인민 총장(31회)를 초빙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독교동문회가 주최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대현(33회)>



27년 한식 전문 셰프들의
손끝으로 완성한 숯불갈비 코스

경복궁 엔탈스

숯불갈비전문점

경남고 38회 이 희 수



경복궁 해운대점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743, 3-4층
경복궁 예약문의 051)742-1236

인터뷰 - 이종철(16회)前 남구청장

국가발전 선도하는 선배보며 성공 의욕 북돋아

낙후된 도시 남구를 활기차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바꾼 전 부산남구청장 이종철 동문(16회)은 학창시절 은사님으로부터 받은 격려와 용기로 민선 구청장을 성공적으로 3연임을 하고 끝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종철 전 청장은 선진계서도 유명한 계몽운동가요 신간회 창립에도 기여하신 교육자이자 정치가였다.

선진의 이런 추진력과 가르침이 이종철 동문의 성공적인 목민관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이종철 동문으로부터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 민선4, 5, 6기 3선 연임 남구청장직을 무사히 수행하고 퇴임하신 것을 동문들을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먼저,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저는 지난 1998년 제3대 부산시 시의원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해 4대 시의원까지 8년간 시의원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제가 사는 남구발전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006년 민선4기 지방선거 남구청장 후보로 나와 30만 구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당선된 이후, 올해까지 3선의 연임 구청장으로 30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다, 지난 6월 29일 명예로운 퇴임식을 가지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이렇듯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2년을 남구발전의 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큰 대과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청장님이 성공한 3선의 구청장으로 남을 수 있게 영향을 끼친 학창시절의 은사님을 꼽는다면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가르침이 청장님에게 영향을 미쳤나요.

“저의 학창시절, 저의 자존감을 높여 주실 뿐 아니라, 장래에 대한 진로설정으로 고민하고 힘들어 할 때, 부모같은 자상함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은사님, 재학시절 추월령 교장 선생님, 주상우 생물 선생님, 김재정 선생님과 황장호 독일어 선생님 등입니다.

추월령 교장선생님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한정된 부지에 최대 면적으로 국내 최초의 원형교사를 신축하여 우리가 마음껏 공부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서울 일류대학을 거쳐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로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 얘기를 통해 저희의 학구열과 성공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또한, 주상우 선생님과 김재정 선생님께서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고교시절 순간적 유혹으로 탈선하거나 사회에 대한 반항감으로 자칫 학생의 본분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고민을 들어주시고 조언으로 방법을 제시해주시는 등 항상 바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선배들을 보며 학구열을 불태웠다는 이종철 前 남구청장.

선진 추진력·가르침 목민관 생활에 영향 김무성 동문 도움 요청으로 정치계입문

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큰 사랑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황장호 선생님은 독일어 등 학업성취와 제가 나아가야 할 진로에 대해 마치 친형처럼 다정다감하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 청장님의 선진계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저의 선진계서는 1899년 부산 좌천동에서 태어나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월성이(李)씨 종가가 있는 울산에서 청장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정미소 사업으로 성공한 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농촌계몽운동을 펼치시며 신간회 지부 창립에도 적극 활동하셨습니다.

이후, 1933년 경남도 도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의정활동 중 대표적인 사업인 울산농고설립을 추진하여 1937년 울산농고가 세워지게 되었다. (당시 울산의 교육환경은 열악하여 매년 2천여 명의 보통학교 학생들이 배출되었지만 이들이 진학할 상급학교가 울산에는 없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학을 다니거나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1931년 이미 도정한 쌀을 일본에 수출해 큰

돈을 벌었다. 이때 선진계서 울산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울산의 청년운동과 교육 사업에 앞장섰다.

선진계서는, 30년대 말 사업실패로 만주 장춘으로 가서 3천 정보의 농장을 개간해 운영 중 해방으로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남구 용호동 염전 2만 8천여 평을 사들인 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1948년에는 대한염업조합 연합회 부회장으로, 연합회 발전과 전국 염업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도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선진계서는 청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국가발전의 초석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런 연유로 현 남구청 자리에 있었던 舊 부산공업고등학교 사친회장과 기성회장을 20년동안 맡아 오시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특히, 한국동란 당시 부산공업고등학교 본교는 미군에서 강당을 육군병참학교로 점령해 있었으며, 당시 화재로 학교가 전소되어 이후 학생들은 야산이나 매추지 가교사에서 공부해야 하던 중 1962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선진계서는 당시 김현옥 부산시장님께 부산공고 교사복구 문제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말씀드렸으나 고교 교사복구문제 건의는 국빈에 대한 결례라고 반대하자 그러면 부산시에서 교사를 복구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과 부산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결국 서울반도호텔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일행과의 Tea-time때 부산공업고등학교 소실 전·후 사진과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교사복구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

일주일후 미국정부(USOM)로부터 주한 미군사 고문단 앞으로 모든 기자재를 보냈으니 교사를 복구하라는 답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교사복구를 위한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 당시 울산공업고등학교 2회 졸업생이자 육군본부 병참감실장으로 계시던 이후락씨에게 도움을 청해 부산공업고등학교 교사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선진계서는 부산공업고등학교를 2년제 부산공업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신후 1977년 타계하셨습니다.

이에, 울산공업고등학교(舊울산농고)와 부산공업전문대학에서 서로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논의해 왔으며, 가족회의를 통해 가까운 부산공업전문대학 교정으로 정하고, 2천명의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고별식을 마치고 양산 선영으로 모셨습니다.

그 후 2008년 3월, 부산공업전문대학 부지였던 이곳에 구민들의 숙원이었던 남구청사를 이룬 제가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계서는 평소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근검절약의 생활과 보은의 길을 택하고 의식주가 해결되면 육영사업을 하고, 길사에는 못가더라도 흥사에는 꼭 가서 위로하며, 전화 10번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찾아 뵙고 인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정교육의 영향으로 저 역시 1981년부터 2년간 용호초등학교 육성회장을 역임하고, (사)용호지역발전협의회장, 용호향후회장, 대연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을 맡으면서 육영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던중, 1996년 10월 당시 문민정부시절 청와대민정비서관, 사정비서관을 거쳐 최연소 내부차관을 하다가 남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무성(24회) 차관이 도움을 요청해 신한국당 남구을지구당 창당에 참여하고 지구당 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용호지역 제3, 4대 부산광역시 시의원 8년, 민선 4, 5, 6기 12년을 3선의 남구청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 이런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청장님께서도 구정운영에 있어 추진력이 뛰어났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취임중 가장 인상에 남는 업적은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지난 2006년 7월, 민선4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구정목표를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로 정하고 구민의 행복과 미래 남구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면서 수많은 구정성과를 거뒀습니다.

먼저, UN기념공원 일원 57만㎡를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역사체험의 현장이자 평화의 성지 “부산남구 UN평화문화특 (15면에 계속~)

인터뷰 - 이종철(16회)前 남구청장

“동문 은혜·사랑 영원히 가슴에 새기겠다”

(14면에 이어서~)

구”로 조성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도 유치해 한국거래소 등 27개 금융·공공기관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오륙도 스카이워크와 이기대 자연마당 등 특화된 관광자원을 활용, 이기대 일대를 매년 170만명의 관광객이 즐겨찾는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구민숙원인 남구 신청사와 남구 국민체육센터, 남구 실내빙상장 등 남구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은 물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사)남구 장학회도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국·시·비 등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전, 현직 국회의원, 시·구의원님과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해주신 780여 전 직원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30만 구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 인상에 남는 업적이 많은 것 같은데 그중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은 무엇인가요.

“3선 연임의 구청장으로 재임 기간중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보람된 일은 남구가 떠안고 있던 부채를 전액 상환하여 부채없는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선 것이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남구 신청사 건립 등 당면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다보니 한때 채무액이 119억원에 달했었지만, 경상경비 절감과 일회성이나 전시성 사업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는 등 각고의 노력결과 지난 2015년 부채 전액을 상환할 수



이종철 前 남구청장은 동문들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부채없는 남구 만드는데 가장 보람된 일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완료 못해 아쉬워

있었습니다.”

- 재임중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사업은 어떤 것이요.

“아쉬운 점은 우선 오륙도 앞 용호 sea-side 관광지 조성과 동생말 주변의 용호부두 재개발, 쉼자리 지구단위 계획 등 용호만 일원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현재 남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현재 남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년내로 대면6, 7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으로 약 8천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고, 또한, 우암1, 2구역 5,500세대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과 감만 1구역 9,500세대 뉴스테이 사업, 대면3구역 4,500세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남구일원의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입주민에 따른 차량증가로 교통체

증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임기중에 “남구 일원 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였고, 이 용역이 완료되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저는 취임과 동시에 남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위해 “비전2020 남구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문현혁신지구와 국제평화중심지육성, 해운테마파크 조성 등 권역별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임기 말에는 “2030 남구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의뢰하여 용호부두와 쉼자리 일원 글로벌 해양 테마파크 등 완료하지 못한 현안 사업 해결에 온힘을 기울였습니다.

부산시 시의원 8년과 민선구청장 12년 등 20년의 시간을 오직 주민 복리증진과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동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제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12년의 임기동안 큰 과오나 흠없이 구청장직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구민과 동문여러분의 큰 신뢰와 성원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사람의 구민으로 돌아가지만, 구민과 동문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뜨거운 사랑은 영원히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모교와 동문회보의 무궁한 발전과 동문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 편집위원 등 80년사 집필진 6명 선임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3차 회동



지난 8월 31일 오후4시 해운대 센텀에 있는 박종찬 총동창회장 사무실에서 열렸다.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집행부와 3차 회동이 지난 8월 31일 오후4시 해운대 센텀에 있는 박종찬 총동창회장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에서 80년사 편찬위원을 각각 3명씩 확정했다. 총동창회에서는 남진현 자문위원장(19회)

과 동창회보 편집위원인 김기열 동문(23회)과 홍보분과위원장인 김종명 동문(29회)이 선임됐다.

재경동창회에서는 강실근 동문(23회)과 강상대 동문(23회) 문창진 동문(25회)이 각각 선임돼 80년사를 집필하게 된다.

용마코러스 합창단원 모집

용마코러스가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2013년 12월에 창단된 용마코러스는 창단 이후 많은 공연과 행사를 통해 내실있는 남성 고교동문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동문 선후배 단원들간의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남중고의 명성을 바탕으로 보다 수준높은 남성합창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는 10월 26일 제2회 정기연주회를 맞이해 창단 후 처음으로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연락처 : 김병기(39회) 용마코러스 사무국장 010-9346-5000



그리고 이날 모임에서는 내년 개교 77주년 축하마라톤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재경동창회에서 기획한 축하마라톤은 여의도에서 출발해 개교기념당일 교문을 통과하는

이벤트로 전국을 77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부산 일부구간에는 총동창회도 참가할 예정이다.

인터뷰 - 박극제(24회) 전 서구청장

경남고 명예동문 되는 날 눈시울 뜨거워

예전 한 때 부산을 대표하는 동네가 있었다. 방구께나 끼는 사람들이 모여 부촌을 이루고, 송도해수욕장이 있어 관광객들로 늘 북적였던 모교인 경남 중학교와 경남고등학교가 자리 잡은 서구였다.

이런 서구가 세월이 흐르면서 슬럼가로 변하고 그 유명한 대한민국 1호 공설 해수욕장이던 송도해수욕장도 낙후돼 사람들의 발길이 뜰 끊겨 들어 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소멸위험에 처한 곳 중의 한 곳이었다.

이런 곳을 다시 재생시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든 이가 바로 민선 4, 5, 6기 서구청장직은 무사히 마치고 지난 6월말 퇴임한 24회 박극제 동문이다. 그는 성공한 구청장으로 남은 몇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송도해수욕장에 예전의 명물이던 케이블카와 구름다리 다이빙대를 현대적 감각으로 설치해 지금은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구를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도 한다.

그의 재직 시절 당시의 이야기를 지난 8월 30일 서구의 모 한정식에서 들어 보았다.



경남고 명예동문이 되는날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감격했다는 박극제 전 서구청장.

— 먼저 민선 4, 5, 6기 부산 서구청장 직을 무사히 수행하고 성공한 청장으로 퇴임하신 것을 동문들을 대신해 축하드립니다. 먼저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12년간, 제가 자신감과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정을 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경남중·고등학교 동문들이 보내주신 신뢰와 애정,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한결같은 신뢰와 성원 속에 제4·5·6대 민선 서구청장으로 취임한 게 잊지 않는데 어느덧 12년 임기를 보내고 구정수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제가 서구청장직을 성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그동안 많이 고마웠습니다.”

— 구청장 재임시절 모교인 경남고에 많은 지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동문들이 청장님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을 지원했나요. 궁금해 하는 후배가수들이 많습니다.

“우리고장 서구는 울창한 숲과 바다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송도해수욕장과 압남공원을 비롯하여 임시수도 기념관 등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도시 인프라 부족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고장 서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한 학생 수 감소 및 학력 저하 등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서구에서는 꿈이 있는 도시, 교육이 살아있는 도시, 인재의 중요성을 깨달은 도시는 영원히 발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도시 행복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들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경남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였습니다.

전통의 명문고 부활 및 육성을 위하여 교육부와 시 교육청, 서구청에서 2013년도 첫해에 3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구청에서 3억 2천만원 정도를 교육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자 각계각층의 많은 경남중·고 선배님들이 축하전화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전재호(21회) 선배님은 직접 언론포도 동판 감사패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직접 언론포도 전달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경남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시작으로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력 향상에도 적극 투자하였으며 실질적 고등학교의 기술교육에도 적극 지원하여 교육도시 1번지로서의 명성 회복은 물론 우리 서구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청장님의 이런 아낌없는 경남고 지원에 동문들이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고자, 청장님을 명예동문으로 모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남고 명예동문이 되니까 감회가 어떠신지요.

“대통령을 두 분이나 배출한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인 경남중·고등학교 동문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경남고 졸업식장에서 구청장으로서 축사를 하고 당시 오거돈 총동창회 회장으로 부터 명예졸업장을 받았는데, 정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격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의 가족과 형님도 매우 좋아하셨고요.

명문고 부활위해 교육예산 아낌없이 지원 교육·행복도시 서구 위해 인재양성에 주력

어릴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어린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최근 동아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까지 마쳤지만 이 모든 것이 매사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고, 많은 주위의 동문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4회 동기들과 정기모임도하고 특히, 구청청소년 수련관에서 옛날의 향수를 느껴 보기 위해 노래도 부르고 동기모임을 했던 즐거운 추억이 생각납니다.

특히, 곽두희, 오성환, 이상룡, 정영석, 김도인, 김인구 24회 동기들과는 지금도 자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중·고 동문이 되고나니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만나고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시 경남고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고라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 부산광역시 제3대제4대 시의원도 하셨는데... 구청장을 하고 싶다. 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게 언제 입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구청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시대적 흐름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민선 4기 구청장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구는 민선 1·2·3기 시대를 맞았으나 사실상 관련 구청장이 재임하던 시기였으며 서구의 발전은 부족하였습니다.

그당시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정활동을 하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우리 서구의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였기에 시대적 흐름에 보조를 맞

추다보니 구청장 직을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선 3선 구청장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구정 경영마인드와 소신이 한결같이 서구민들과 동문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삼사일언 언행일치(三事一言言行一致)’는 제 생활의 신조입니다. 사무실에 족자를 걸어두고 매일매일 보았습니다.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듯이 항상 말을 조심하며, 자신이 말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민과의 약속은 꼭 지키면서 구민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구민의 심부름꾼이란 낮은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고 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 체력단련과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6시경 일어나, 관내 운동장과 등산로 등을 다니며, 주민들의 모든 생활불편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신뢰성 있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소통하고,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찾아 해결하였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였고 “현장에 항상 답이 있다.”는 저의 경영마인드를 말씀드립니다.”

— 부산 서구는 청장님 재임시절 너무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제1호 공설해수욕장인 송도는 최근 관광객들에게 핫플레이스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변했는데요. 여기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시죠.

“최근 송도해수욕장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 송도해수욕장을 대표하던 명물, 해상 케이블카와 해상다이빙대가 복원되었고, 해상구름산책로와 오토캠핑장, 해양테포스센터 (17면에 계속~)

인터뷰 - 박극제(24회) 前 서구청장

송도해수욕장 천만명 찾는 사계절관광지로 변모

(16면에 이어서~)

가 새로 조성되었으며, 내년에 해양테러터온과 용궁구름다리가 들어서면, 최적의 조건과 시설을 갖추어 카약, 윈드서핑 등 해양스포츠의 전국 메카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제 송도해수욕장은 여름 한 철 반짝하던 휴양지가 아니라, 사계절 국민여가휴양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통한 해상케이블카는 부산관광 일번지로 부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송도해수욕장을 홍보하는 일석삼조의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도 꼭 오셔서 케이블카를 탑승해 보시고, 넓은 바다와 원시비경을 간직한 압남공원, 국가지질공원, 남항 일원의 풍광 등 송도의 변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재임시절 하신 일 중에 주민들로부터 가장 호응이 좋았던 정책이나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 가장 아쉬웠던 사업은 무엇인가요

“원도심의 인구유입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심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발에는 부작용이 있었을 수밖에 없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10평에서 20평 남짓한 작은집에 살다가 작은 보상금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 형편상 재개발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분들, 국·시유지에 집을 지어 매년 변상금에 시달려야 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팠고 아쉬웠습니다. 반면에,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

여름 한 철 반짝하던 송도해수욕장이 연간 천만 명이 찾는 사계절 국민여가휴양지로 변



송도해수욕장을 사계절 휴양지로 바꾼 것이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박극제 전 서구청장.

“원도심 개발 부작용에 많이 안타까워” 凡人으로 돌아가 여행하면서 소일할 터

모하였고 활발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낙후’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명품주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3월 창립한 새사람의 따잇기봉사단후원회는 어린이집 원아에서부터, 학생, 시장 상인, 기업인 등 각계각층에서 기탁한 모금액이 제가 퇴임할 당시 128억 여 원으로 사랑의 연탄나누기, 아이사랑 희망소원 들어주기, 사랑의 집수리 등 복지사각지대 ZERO화에 기여하였고, 2013년 4월 창립한

서구 장학회는, 기금조성 30억 원을 목표로 하여, 매년 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하고 꿈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각 동 주민자치회의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13년 연속 수상 진기록 등은 구민들과 함께한 보람이었습니다.

- 구청장 재임시절 12년동안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었으나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것을 들 수 있습니까

“시의원 8년, 구청장 12년, 장장 20년이나 되는 긴 공직생활을 한 치 부끄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뒷바라지 해준 집사람과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동안 제가 공인이었기에, 남들처럼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완벽한 보상은 되지 않겠지만,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집사람과 오손도손 여행도 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아니라 남편으로서에게는 아빠로서, 손자손녀에게는 할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해보려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저는 12년간 서구청장이란 중책을 마쳤습니다. 제 인생에서 특별하게 기억될 서구청장직을 잘 마무리하도록 동문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서구는 도시개발, 문화관광, 경제진흥, 보건복지 등 구정 모든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동문 여러분과 구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덕분에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이별의 시간이 되어서야, 만남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문 여러분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과 인연들은 평생 제 가슴에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도 저를 오래오래 기억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서구 발전과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 서구의 변화와 발전의 기틀을 닦았다.”라고 기억될 수 있다면 제게는 더 이상의 영광과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하고, 지원해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고-송정규(25회) 前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한반도의 봄’, 해양·항만산업 발전 호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은 현재도 미래도 훌륭한 자산이다.

남북한 정상들이 최근 관문점에서 두차례나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하면서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대륙의 관문인 부산까지 연결하고 러시아와 한반도를 잇는 파이프라인가스 개설을 통한 경제협력을 역

설해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한반도의 봄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철도와 항만 등 남북한 물류루트 연결이다.

남북간 물류망이 이어질 경우 부산항에서 취급되는 컨테이너 화물들이 철도 운송을 통해 유라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게 된다.

그럴 경우 해양·항만산업의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지게 되고, 그 중심에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세계 5대 항만인 부산항이 서게 된다.

해양을 중요하게 여긴 나라들이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잘 알 수 있다.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를 누빈 것도 최초로 갤리선을 제작, 해상을 장악하고 시장을 개척한 덕분이었다.

그들이 상거래를 위해 만든 페니키아문자는 그리스와 로마문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에 위치한 그리스가 지정학적 위치를 잘 파악해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것도 호메로스 신화 속의 ‘오디세우스’와 같은 해양 개척

자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12세기 중엽 건국한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의 서쪽에 위치해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문화의 영향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해양도시들이 무역으로 급격한 부를 쌓을 시기에 엔리케 왕자는 뜰새를 공략했다. 새로운 바닷길의 개척이었다.

그가 중심이 되어 쌓은 해양인프리는 결국 희망봉을 돌아아시아로 향하는 길을 개척했다.

바다에 주목하고 대양을 지배한 해양강국이 된 사례는 포르투갈의 옆나라 스페인도 마찬가지다.

고토 회복 운동이 끝나는 1492년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를 지원함으로써 스페인은 지리상의 발견을 주도한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다.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물리치고 새로운 강자로 부각된 영국 역시 바다에서 길을 찾았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적출신 드레이크를

이용, 해상장악을 시도했고 결국 1588년 아르마다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꺾었다.

이로써 영국은 해가 지지않는 나라로 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세계의 대양을 누비게 됐다.

지금의 세계도 해양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컨테이너 2만1,000개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을 앞세운 글로벌 선사들의 시장 쟁탈전이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항만 하역시설 또한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인화, 첨단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를 통해 신항을 메가포트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21선석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29선석, 2030년에는 40선석으로 확대해 연간 컨테이너 3,000만개를 처리할 초대형 터미널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도 지금보다 8배 넘는 규모로 늘려 생산과 가공, 물류와 비즈니스가 연계된 종합 물류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해양대를 졸업한 후 20대 후반 나이부터 대한민국 최연소 상선 선장으로 시작해 도선사에 이르는 해양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반도의 봄으로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부산항, 사람과 사람이 만나 꿈을 꾸는 부산항, 더 큰 희망을 키우는 부산항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정부의 해양강국 의지에 기대를 걸어본다.

기고-정윤희(36회) 해운대지구 동창회 회장 겸 언론인 클럽 사무국장

‘동창회는 불러주는 곳이 아니고, 찾아가는 곳’ 사실 인지하기를



36회 해운대지구 동창회장 정윤희입니다.

이번 동창회가 후배들과 갈등 사태를 겪으며 40회 중반 이후 후배들에 대한 생각이 한편으로 이해도 가고 선배의 한 사람으로 일말의 책임감이 들기도 합니다.

집이 광안리였던 저는 1979년에 경고로 배정을 받을 당시 교통체증이 없었음에도 대신 동까지 가려고 버스를 두번 갈아타면 1시간거리였고, 직통인 39번이나 40번 버스를 타면 구덕운동장 입구에 내려서 족히 20분은 걸어야 교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7시 20분으로 기억하는 등교시간으로 새벽 6시에 출발해야 등교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명문 경남고라는 허울에 자아도 취하며 등교 스트레스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당시 대학 벽보에 경남고 동문회 개최를 알리는 손으로 쓴 포스터가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전 동문들이 모여서 밤을 새며 막걸리를 기울이는 기쁨을 토하였습니

다. 그만큼 명문 경남중고 동문이라는 것은 자부심과 긍지였습니다.

제가 진학한 중앙대학교는 80년대 초중반에 경남중고 동문 숫자가 아주 적었고, 그렇다 보니 동문회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아, 제가 각 단과대학 사무실을 찾아가서 동문 명단을 확보하여 선후배가 수업을 받는 강의실을 찾아가서 동창회를 하자고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앙대 총장이 김영삼 대통령과 동기인 3회 문병집 선배님이셨습니다.

일부 후배들은 10, 20회대 선배들이 여전히 동문회를 이끌고 지금 나이가 50대인 30회 이후의 동문들이 일부 끌려가는 형태이며, 40회 이후의 동문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하며,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문회에 관심도 없는데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선배의 탓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1970년 중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 동문 뿐만 아니라 다른 대다수의 학교들도 겪는 공통사항이기도 합니다.

형제가 3남매 이상이 당연하다가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당시 캠페인의 여파로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독자 내지는 2명 정도의 형제로 태어나, 속된 표현으로 “오냐 오냐”하며 자란 세대들이 태반 이상이라, 마치 미국사회를 쫓아가듯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하여 작금에 사회적으로 희생정신은 없애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결혼과 자녀양육은 당연했던 분위기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양육도 귀찮은 짐으로 생각하며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하고 줄 줄

은 모르는 사람이 조금 더 확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겠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 문화는 접촉 사고가 나면 “무조건 큰 소리쳐야 이긴다.” “무조건 입원하라”는 등의 잘못된 가르침이 만연하고, 누군가가 맞아 죽을 지경이라도 “모른 척 해라”는 문화가 만연하며 미성년자들의 추태나 심지어 범죄를 보고도 나만 피해를 보지 않으면 된다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저씨가 댜데요?”하고 대들까 두려워, 남의 일에 끼어드는 사람이 한심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사회가 요즘입니다.

주위에 동네 어르신은 사라지고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 동창회는 물론이고 종친회 등에 더욱 관심이 없어져 우리의 미풍양속인 부모와 조상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해지고 자녀양육보다는 오로지 해외여행과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후배들만을 탓할게 아니고 다른 모든 집단과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선배의 무관심이 후배의 무관심으로 이어져 동문 선후배들 갈등 봉합을 바라며 선배는 끌어주고 후배는 뒤에서 밀어야 한다는 노래 가사 유념하기를”

40회 이전만 하더라도 같은 대학에 재학하는 동문 선후배는 서로 아끼고 배푸는 아주 친밀한 사이인 것은 당연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경남중고 동창회에는 평균 27세가 되어 첫 사회 진출을 하는 시기의 동기는 무조건 총동창회에 가입하여 동문간에 같이 연을 맺고 회비도 조금 내며 우애를 다지는게 당연했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졌다면 올해에는 65회가 27살이 되어 총동창회에 가입해야 할 것이며, 그러면 당연히 40회대 기수는 대선배가 되어 중추적인 역할로 후배들을 이끌어야 하겠지요.

당시 부산, 서울 및 각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주요도시에 동문회를 발족하여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뿐 더러 자부심이었습니다.

당시 누가 시켜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총동창회에서 안내를 해주거나 연락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창회 활동은 누가 권하거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선후배 동문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재학시절 선배와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가면 당연히 경남중고 동창회가 있으며,

27살이 되면 명문 경남중고 총동창회에 가입하면 사회에 진출해 계신 선배들에게 많은 노하우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늦게 신고를 한 동기회 집행부는 혼쫌(?)이 나기도 하는 형태였습니다.

대부분 동기회 집행부에서 먼저 총동창회에 연락해 신고를 하는 형식이었지 총동창회에서 찾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동기회 집행부가 되면 당연히 총동창회에 관심을 가져야 함이 당연하고, 협조를 하며 선후배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는 혜택 아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기회 집행부에서 선후배들과 교류함으로써 선후배와 교류를 원하는 동기들에게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외국에 이주를 하게 되면 외로움과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주로 교민이 다니는 교회를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문들은 교회보다 동창회와 동문들을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미국같이 땅이 넓은 지역이나 동남아에서는 비행기로 1시간 이상가는 거리에 사는 동문들을 만나러 동창회에 가는 길은 마치 이산가족 상봉행사나 마찬가지로 들뜨기도 하고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 많은이가 JCL나 로터리클럽, 라이온스클럽 등에 수백만원의 입회비를 내고 가입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동창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류를 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동문들이 도와서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되시는데 작은 역할이 되기도 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 우리 동문들끼리 서로 돕고 위한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더욱 윤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재많은 명문 경남중고를 나오고 동창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0회 이후의 후배들은 이런 사실들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총동창회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거나, 왜 참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집행부가 있다 하니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 남보다 우애 있게 지내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듯이, 우리는 같은 교명에 같은 교정에 같은 교가에 같은 교훈으로 같은 교육을 받은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끼리도 생각이 맞지 않아 다툼 수도 있겠지만, 형은 아량으로 받아주고 아우는 막가는 패륜아가 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선배가 실수나 역지를 부리면 잠시 피하고 후배가 실수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이해 해주며 총동창회같은 체계적인 단체까지 갖춘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런 경남중고 동문입니다.

각 동기회 집행부나 일부 동문들은 “총동창회에서 해준게 뭐 있느냐? 우리끼리 잘 지내면 니 신경개달리”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제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중고 동창회보를 보내주는 것만 보더라도 총동창회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큰 관심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총동창회에서 후배들에게 연락과 관심이 없었다거나 후배들이 비협조적이라고 서로 탓을 하지 말고,

이번에 취임하셔서 온 사생활을 접고 후배들의 동기회를 챙기며 각종 동창 모임에 참여하시어 거역의 사비까지 희사해주시는 총동창회장의 노고를 기화로, 우리 모두 합심하여 총동창회와 모든 동문들은 모두가 한 편이라는 결 믿어 의심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창회보광고

동창회보 광고를 받습니다.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고가 동창회의 활력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 광고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뒷면 전면광고 200만원 / 반면광고 100만원 안쪽 전면광고 150만원 / 반면광고 75만원 4단 하단광고는 40만원

광고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 051-245-7551~3 또는 동창회보 편집주간 ☎ 010-3878-3485

경남중고 총동창회

54회 동기회 첫모임 30여명 참석



지난 7월12일 민락동 용마횃집에서 열린 54회 동기회 첫 모임에서 총동창회 간부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변현규(7회) = 7월 24일 작고
- ▶ 김효민(11회) = 4월 15일 작고
- ▶ 서근조(11회) = 8월 2일 작고
- ▶ 손석보(21회) = 8월 16일 작고
(미국 북가주지역 동창회소속)

54회 동기회는 지난 7월12일 민락동 용마 횃집에서 3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동기회 첫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총동창회의 1차 지원 및 총동창회장의 2차 호프집 지원으로 풍요로운 첫모임이 되었다.

NEWS 동문동정

김강호(27회) '명계유고' 한글번역본 출판기념회



김강호 동문은 지난 7월23일 거제 청소년수련관에서 '명계유고' 한글번역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명계유고'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활동하신 우리 거제의

고명한 유학자 명계 김계윤(1875~1951) 선생의 저서이다. 김계윤 선생은 구한말 우리나라 유림의 대표적 인문이던 면우 곽종석 선생의 제자이자 거제에서 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한 마지막 유학자이다.

윤동섭(34회)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임명

연세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홍종화 교학부총장)는 16일 오후2시 회의를 개최하고 세브란스병원장에 현 이병석 원장을 유임시키고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윤동섭 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강남세브란스 병원장에 임명된 윤동섭 교수(34회)는 1987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원에서 석사와 고대대학원 박사를 받았다. 이후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료협력센터 소장, 연세의대 강남부화장을 거쳐 현재 연세의대 외과 주임교수, 국간담체외과학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병석 원장이 연임을 확정 한 후 지난 15일 오후 윤동섭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의 임명이 최종 결정됐다.

임성배(35회) 은탑산업훈장 수상



지난 7월 6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제25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에서 SK이노베이션 전무 임성배 동문이 은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동문은 고압가스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하며 국가 에너지·화학산업 발전과 수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수상식에서 임동문은 "안전경영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

배호원(22회)·박이현(38회) 동문 육상 임원으로 아시안게임 참가



배호원 박이현 동문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경기대회육상선수단 임원으로 참가했다. <사진=박이현 동문(38회)>

배호원 대한육상연맹 회장(22회)과 박이현 중부산지역 동창회 문화국장(38회)은 지난8월20일부터 9월2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경기대회에 육상 선수단 41명과 함께 참가했다.

배호원 동문은 육상연맹 회장의 자격으로, 박이현 동문은 대한육상연맹 임원자격으로 조사원으로 과견패 육상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업무를 맡았다.

배 동문은 삼성정밀 사장을 지냈고, 박 동문은 현재 전국17개 시도 육상전무이사(실무자)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다.

로, 박이현 동문은 대한육상연맹 임원자격으로 조사원으로 과견패 육상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업무를 맡았다.

배 동문은 삼성정밀 사장을 지냈고, 박 동문은 현재 전국17개 시도 육상전무이사(실무자)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다.

투 고 환 영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용마동문 여러분들의 소식을 알리는 창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정 및 모임, 칼럼, 수필, 시, 기행문, 감상문, 사진, 그림 등을 동문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 싶은 것이면 무조건 환영합니다. 아래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편집해 동창회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yongma2007@hanmail.net

동창회보 편집주간 김성원(31회)

동기회·동호회 소식

15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5월20일 서울 천신일 동기(주)세중 대표이사)가 마련해 준 리무진버스 2대로 동기45명이 서울 성북동에 소재한 "우리 옛돌박물관"을 방문하여 서울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3회 동기회 = 하계 캠프



지난 7월21일 일광 해수욕장에서 23회 젊은이들이 하계 캠프를 열었다.

대구 고성 등 먼 곳에서 여름의 피약별을 마다하고 달려 온 동기들과 부산 김해 등지의 동문들이 바다 내음을 맡으며 수영 뾰츠를 입고(?) 40여명이 모였다.

특히 채행운 동기는 사돈,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들과 어부인을 모신 대군단을 이끌고, 시원한 큰 수박 3통과 방금 쪄낸 송편 2상자를 쾌척하셨다. 어부인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장미꽃 예순여덟 송이는 사랑이 가득 담긴 꽃바구니가 되어 소년소녀(?)의 추억이 되었다.

닭볶음탕으로 점심식사를 풍성히 하였다.

동무들은 삼삼오오 자그만 상을 둘러 앉아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청탁을 불문한 우정의 잔을 기울이며, 옛날의 일들을 마치 오늘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꽃을 피웠다.

공개된 한 구석에서는 주당(?)들의 피 튀기는 고스톱 혈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결과는 싱거웠다.

하계캠프를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신 전상대회장님, 김상영 사무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찬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광 김동욱 동기에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동문 및 동기들이 더운 여름 항상 시원함이 있기를 바란다.

24회 남해수 = 7월 정기모임



지난 7월 13일 15여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모임인 남해수의 7월 정기모임을 장가계에서 가졌다.

24회 산우회 = 7월 정기산행



지난 7월 7일 어린이대공원을 시작으로 수원지, 바람고개, 선암사, 초연중학교를 거쳐 시민공원에 이르는 코스를 12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7월 정기산행을 하였다.

25회 산우회 = 8월 산행



지난 8월12일 7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가지산휴게소를 시작으로 입석봉, 쇠점골, 호박소를 거쳐 삼양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8월 산행을 가졌다.

25회 쌍백회 = 8월 정기모임



지난 8월10일 서면 부광횃집에서 16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25회 쌍백회(경남중졸)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신현대 20만원, 김종현 20만원, 박세철 20만원 등 동기들의 찬조로 모임은 더욱 즐거웠다.

25회 골프회 = 골프경부전



경남중고 25회 동기회 골프경부전이 올해도 태풍을 이겨내고 지난 8월 24,25일 양일간 문경GC에서 1년 만에 조우하여 우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결과는 부산팀이 승리하였다.

27회 동기회 = 6월 정기모임

지난 6월27일 수정횃집에서 2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6월 모임을 가졌다.



27회 동기회 = 8월 정기모임



지난 8월4일 사직구장에서 유영호 회장 외 23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가졌다. 총동창회 야구 지원 방첩에 부응하면서 27회 야구단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성득(27회) 롯데야구 해설위원의 해설로 롯데 대 삼성 경기를 관전했다. 롯데가 삼성에 5대4로 역전승을 거뒀고 경기종료 후 700beer에서 생맥을 함께 했다.

27회 산우회 = 8월 산행



지난 8월 12일 배내골을 시작으로 사자평, 주안계곡까지 구간에서 13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8월 산행을 가졌다.

33회 동기회 = 단합대회



지난 7월 8일 31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경남고를 시작으로 구봉산을 거쳐 꽃마을에 이르는 구간에서 단합대회 및 산행을 하였다.

33회 재경동기회 = 7월 모임

지난 7월30일 24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삼각지 육군회관에서 7월 모임을 가졌다.

참가자: 최태준 임완영 이상진 황철 이형근 김성남 이재원 노상식 김호진 김윤재 이해승 구옥진 김중근 정창진 김성훈 신봉섭 박진우 권창주 유대현 정이준 김윤성 박태종 이순환 유종남



35회 울산 동기회 = 7월 모임



지난 7월 12일 달동 이조한정식에서 7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 동기회 7월 모임을 가졌다. 이복근 동기의 생일 파티와 신승우 동기 딸 입국 및 강창호 동기, 전상건 동기의 울산 모임 합류를 축하하는 자리도 겸해 마련되었다.

39회 동기회 = 7월 정기모임



39회 7월 정기모임이 지난 7월 20일 동기 송기정 동문이 운영하는 문현로타리 인근 불끈나지에서 20여명 가까운 동기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41회 동기회 = 8월 정기모임



지난 8월 24일 10여명의 동기가 모임 가운데 해운대신대구탕 사당점에서 8월 모임을 가졌다.

44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7월 27일 민락동 용마횃집에서 2018년 4번째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휴가철임에도 많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멀리 해외에서 근무 중 일시 귀국하여 참석한 최주섭과 서울에서 온 김경조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기별 분담금과 야구 후원금 납부에 관한 건을 의결하여 7월 30일 오전에 납부 완료하였다.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여 다음 모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란다.

참석자 : 안병규(회장) 우도균(사무국장) 조영호(사무차장) 조상화 박중현 전광렬 최주섭 김경조 하태욱 조진현 조진협 김부건(현석) 권상근 차성민 정의석 이흥섭(재기) 윤성진

49회 동기회 = 8월 정기모임

지난 8월 24일 중앙동 달토끼에서 15여명의 동기가 모임 가운데 재부 49회 8월 모임을 가졌다. 총동창회에서 박종찬 회장, 옥동훈 사무총장, 신승렬 사무국장도 자리를 함께하여 선후배 간의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초크회 = 8월 정기 모임



지난 8월 18일 43회 당구 소모임 '초크회' 정모가 있었다. 동기들의 정성과 찬조가 스며있는 단체 폴로 면티를 입고 출정하였다.

우승은 배진국, 준우승 박승삼, 하이런엔 김민석이 차지했다. 참석자 : 박승삼 배진국 김준근 김민석 박경곤 이상필 이진배 김진규 주용준 강병규 박형규 오일남 박경석 전순표 이정렬 최동환 김수민

현대자동차 동문회 = 6월 문화모임



현대자동차 동문회 6월 문화 모임이 지난 6월 20일 오후 6시 울산시 달동 포도청 & CK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수상한 흥신소3'라는 연극을 관람했다. 그리고 참석 가족들에게 5만원권 백화점상품권이 지급됐다.

33회 산우회 부부동반 장산 야간산행



33회 산우회 정기산행에 참가한 동기부부들이 2차 뒷풀이를 한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윤원욱 편집위원(39회))

'33회 산우회'는 제 742차 산행을 지난 8월 18일 오후 7시 해운대 신도시 대천공원에서 장산 중봉까지 여름 야간산행으로 진행했다.

산행을 마치고 뒷풀이로 좌동 재래시장 안에 있는 32회 이상현 동문이 운영하는 정가대박 대패삼겹살집에서 가졌다.

뒷풀이에서 동기와 동기부인들과 함께 한 여름밤더위를 식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 남택은 산우회장 이명진, 김태훈 산우회총무, 김법영 김미란, 민병현 공미형, 김종만 윤서현, 정영학 김미경, 박태종 김희정, 지창근

34회 당구회 정기모임서 이상운 동기 우승



지난 8월 18일 자갈치 '어데고' 당구장에서 열린 34회 당구회 정기모임에 참가한 동기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34회 당구회)

34회 당구회 8월 정기 모임이 지난 8월 18일 자갈치에 위치한 '어데고' 당구장에서 열려 동기 당구왕을 선발했다.

이날 모두 10명의 동기가 참여해 자웅을 겨뤘는데, 우승은 이상운(송도중 교장) 동기가 차지했다.

뒷풀이로 곰장어집에서 보양식을 즐기고 호프집에서 시원한 맥주로 마무리를 하였다.

<찬조> 이상도 30만원 김두섭 30만원

42회 임원진, 총동창회 집행부 초대 식사



42회 임원단이 총동창회 집행부를 초대해 식사 모임을 하고 있다. (사진=42회 동기회)

지난 8월 17일 42회 동기 임원진(박동식 회장, 신봉준 수석부회장, 광창우 부회장, 정홍준 사무국장, 안정일 재무국장)이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옥동훈 사무총장, 신승렬 사무국장, 김태호 IT분과위원장, 윤원욱 영상편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식사를 하였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의 열정과 추진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42회 동기회가 더욱 화합하고 단합되는 동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39회 산우회 광복절 기념산행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열린 39 산우회 광복절 기념산행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39 산우회)

39회 산우회 제156차 광복절 기념산행이 지난 8월 15일 오전 10시 모교인 경남고 정문에서 출발해 대신공원을 거쳐 꽃마음까지 2시간 가량에 걸쳐 열렸다. 이날 산행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트로 이민간 김정남 동기가 업무차 잠시 귀국, 함께 했다.

김병기 산우회장과 이상학 총무와 가족, 창원에서 온 하성포 동문, 문병운 동문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53회 동기회 첫결성 모임... 임원진 구성



53회 동기들이 동기회 결성을 위한 첫모임을 한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53회 동기회)

지난 7월 20일 대신동에서 53회 동기들이 모였다.

오랜만에 대신동을 찾으니 감회도 새롭고 많이 바뀐 거리가 낯설기도 하지만 모임 장소에는 그때 그 얼굴들이 있었다. 많이 더운 날씨에 저마다의 생업에도 불구하고 모여준 동기들과 특히 불원천리 파주에서 이번 모임을 위해 달려와 준 광상훈 동기에 고마움을 안고 모임을 진행했다.

1차는 회의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룸을 보유하고 있던 이자카야 겐슈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비록 이날 뱃지는 못했지만 이자카야 겐슈는 41회 선배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한다.

1차로 회의와 식사를 간단히 끝마치고 이동한 동대신동 사케노미도 역시 58회 강평민 후

배가 운영하는 곳이다. 부산 서구 근처에서는 일주일동안 동문들 가게만 다녀도 삼시세끼 다 해결하고 술과 안주에 회식까지 가능할 듯하다.

회의를 진행해보니 경험도 없고 동기회 구성이 처음이었던지라 무턱대고 일을 시작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지만 이원준 동기가 회장직을 수락하여 주어 경남중고 53회 초대 동기회장은 이원준 동기가 맡게 되었고 실무적으로 많이 움직이게 될 사무국장은 최동환 동기가 맡게 되었다.

아직까지 결정해야 할 일들과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53회 동기회의 첫 결성을 내디뎠다. 정식 동기회 결성식은 9월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동창회보구독료 입금 4000명 도전 현황

지난 10년간 통계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회	10	13	16	17	19	17	12	9	5	6
4회	13	19	25	25	28	23	21	13	11	9
5회	16	19	25	21	30	22	21	16	15	11
6회	17	25	35	32	41	34	27	27	25	18
7회	18	21	42	55	55	45	37	34	31	26
8회	18	28	35	43	54	44	43	31	37	27
9회	32	45	52	53	62	45	48	34	33	24
10회	36	48	57	65	73	67	56	46	51	37
11회	43	68	86	104	119	93	88	72	81	62
12회	46	69	108	113	126	90	68	71	83	70
13회	46	76	117	130	136	109	113	103	105	95
14회	26	50	62	100	113	105	103	72	70	70
15회	30	56	67	103	112	107	107	34	62	73
16회	30	51	110	116	120	109	104	77	65	67
17회	32	63	101	114	116	94	93	66	72	63
18회	26	43	61	135	145	117	114	61	95	85
19회	55	69	110	130	153	123	105	95	109	84
20회	26	57	61	105	111	98	103	61	75	64
21회	56	91	121	141	150	124	111	88	111	95
22회	37	67	117	131	138	122	116	86	99	79
23회	26	54	120	136	167	128	124	94	117	89
24회	42	79	121	141	154	133	132	107	113	118
25회	30	55	60	110	120	103	113	37	93	160
26회	29	73	120	131	140	123	127	91	94	95
27회	25	60	64	64	114	82	78	70	73	71
28회	36	77	98	114	113	104	108	72	87	78
29회	38	66	110	127	161	123	115	34	115	106
30회	41	64	118	137	165	132	125	97	112	100
31회	38	75	96	101	113	89	85	55	74	78
32회	28	42	50	59	61	64	48	34	41	41
33회	25	54	62	65	74	59	58	40	52	45
34회	11	26	35	42	54	32	41	27	20	39
35회	9	21	36	42	60	45	54	30	44	35
36회	8	20	44	54	55	40	46	32	35	55
37회	18	23	35	36	42	30	29	26	35	32
38회	12	25	30	25	35	44	33	27	40	44
39회	18	51	20	44	65	46	26	16	20	67
40회	7	23	26	37	61	45	41	25	24	23
41회	4	15	23	32	44	31	38	11	27	29
42회	2	3	9	15	18	13	10	6	14	17
43회	3	7	6	18	29	20	15	9	13	14
44회	3	13	22	21	29	18	15	8	12	12
45회	2	6	11	12	17	10	14	8	11	5
46회	1	3	3	4	15	15	10	7	9	29
47회	0	2	6	5	7	5	4	1	5	13
48회	0			3	2	3	2	0	1	1
49회	1	5	4	7	10	7	7	3	4	42
50회		3	7	2	3	9	8	3	3	24
51회				5	6	4	5	2	5	16
52회				1	4	2	2	1	2	4
기타	13	19	30	38	67	56	48	30	30	27
총 인원수	1,129	2,068	2,959	3,405	3,942	3,224	3,087	2,325	2,629	2,566



어디서 무엇을?

<12회>

△문정수 = 7월19일 가수로 데뷔(초대 민선 부산시장). 올해 80세 생신을 기념하는 산수연(傘壽宴) 자리에서 '문.마켓'이라는 예명으로 쇼케이스를 열어 '부산 남자'를 불렀다고 한다.

<13회>

△문창 = 10월7일(일) 13시 아들 양운군이 포항 누벨마리에 웨딩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채욱 = 부인상. 7월18일 청량리 성바오로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윤진규 = 부인상. 8월21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0회>

△이성재 = 부친상. 8월22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장세양 = 9월14일(금) 19시 딸 아라양이 베일리 하우스 논현점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23회>

△이상렬 = 8월25일(토) 13시20분 HRD 코리아 대표이사의 장남 원기군이 창원 리베라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장봉주 = 빙모상. 7월11일 함안장례식장에서 발인.

<24회>

△김유신 = 7월21일(토) 온천장 호텔농심 허심청에서 성산 인문학연구소 개소식 및 기념강좌를 거행했다. △박극제 = 6월29일(금) 17시 30분 서구청 광장에서 서구청장 이임식을 하였다. △이전제 = 8월18일(토) 11시 아들이 여의도 웨딩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장한중 = 7월14일 빙부상. 인천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5회>

△김국진 = 7월2일 한국화학섬유협회(KCFA) 신입회장에 취임. 김동문은 고려대학교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주)유엔씨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사)호국문화진흥위원회 감사를 역임했다. △김영명 = 8월25일 13시30분 아들 민준군이 코모도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박문갑 = 9월1일 13시 아들 시영군이 센텀 사이언스파크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신현대 = 7월8일 11시 장남 상필군이 W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6회>

△김성관 = 부인상. 7월15일 대구 카톨릭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우성 = 부친상. 7월18일 청구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철홍 = 9월1일 12시 장남 정우군이 부산 동대신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백유찬 = 모친상. 7월1일 동래 한서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장인철 = 모친상. 6월23일 주교좌 남천성당에서 발인. △전상섭 = 모친상. 7월8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최응덕 = 8월23일 16시(현지시간) 최응덕소아과의원 원장의 장녀 Julia양이 하와이 HOLUALOA INN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7회>

△강성보 = 재경동창회보(용마)편집으로 선임(20180605~). = 빙부상. 8월6일 흑석동 중앙대병원 영안실에서 발인. △고창우 = 모친상. 7월26일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준기 = 부친상. 7월27일 부산 인창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영일 = 빙모상. 7월4일 일원동 삼성의료원에서 발인. △김태공 = 9월8일(토) 15시 딸 성아양이 조선호텔뱅크클럽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김태운 = 동생 김태석님이 사하구청장에 당선되었다. 축하드립니다. △윤대수 = 7월14일(토) 17시 장녀가 르 메르디앙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전경진 = 7월7일(토) 14시 차남 상군군이 에스티아 웨딩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8회>

△김동수 = 빙모상. 7월14일 부산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대성 = 모친상. 8월1일 주교좌 남천성당에서 발인. △김명준 = 9월8일(토) 14시 차남 민재군이 마리 드 블랑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나승대 = 7월15일(일) 13시 장녀 희진양이 더채플앳창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박재훈 = 부친상. 8월15일 대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백진수 = 8월17일(금) 19시 장남 재원군이 해리움웨딩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서영대 = 빙모상. 7월16일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용남 = 빙부상. 7월4일 삼신전문장례식장에서 발인. △하대용 = 율릉도에서 '북풍의 언덕'이라는 펜션업 시작. T.010-3858-9022 (www.boreas.co.kr)

<29회>

△김정암 = 모친상. 8월21일 창원시 상복공원에서 발인. △김하원 = 빙부상. 8월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명섭 = 9월16일(일) 12시 차녀 지문양이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안중주 = 빙부상. 8월8일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병우 = 9월29일(토) 12시 딸 동민양이 아모리스 강남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선유 = 9월30일(일) 15시 장남 정현군이 안산 GD컨벤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정란 = 9월8일(토) 14시30분 장녀 인해양이 대전 호텔ICC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30회>

△고영우 = 모친상. 7월26일 부산의료원에서 발인. △권용택 = 부친상. 7월25일 부산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국렬 = 9월1일(토) 13시 장녀 민정양이 서울 월드글로리아센터(명성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김병환 = 9월9일(일) 12시20분 차남 동건군이 창원 풀만호텔웨딩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김찬규 = 빙부상. 7월15일 진주세텀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희관 = 8월25일(토) 12시30분 장녀 헤인양이 코

모도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장석일 = 모친상. 6월25일 서울 성애병원에서 발인. △정세영 = 모친상. 6월26일 마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최원수 = 9월15일(토) 15시 장남 인환군이 루나미엘레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32회>

△김종식 = 모친상. 6월28일 남해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3회>

△정길섭 = 부친상. 8월17일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34회>

△조문국 = 부친상. 7월16일 부산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5회>

△유철인 = 부모상. 7월4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6회>

△송준호 = 빙모상. 6월26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한호 = 8월25일(토) 11시30분 장녀 병선양이 역삼 GST타워 1층 아모리스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베트남 호치민에 거주하지만 본부동기회 부회장으로 동기회에 여러모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39회>

△임성욱 = 7월27일 빙모상. △우형철 = 전)동기회장. 7월31일 부친상. △장훈 = 8월17일 모친상. △조임환 = 8월26일 장녀 결혼.

<43회>

△김대영(김준근) = TRUST MEDICAL로 새로운 사업 시작. 사업종목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료기기, 장비, 수술실기구, 소모품, 기구수리 등. T. 010-3588-1125

<49회>

△김덕호 = 리어카포차 브랜드 운영. 서초동 1337-2 강남역 5번출구 근처. T. 010-8504-1634

동창회보 구독료 3만원 납부가 주는 의미

현재 경남중고 동창회에서 발행하는 회보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총동창회에서 발행하는 '동창회보'로 418호까지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재경동창회에서 발행하는 '용마'지입니다. 182호까지 발행했습니다.

회보에 관심이 없는 동문들도 많지만 '동창회보'를 통해 꾸준히 동문들의 소식을 접하는 동문들이 상당합니다.

동문들 중에서 '동창회보'와 '용마'에 모두 구독료를 납부해 2가지 회보를 구독하는 동문들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를 선택해서 구독하는 동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동창회보'는 구독료 납부 여부와 관

계없이 기본적으로 연락이 닿은 모든 동문들에게 발송을 해 왔는데, 몇 년 전부터 재정적인 부담으로 10년간 한번도 구독료를 내지 않은 동문에게는 발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구독료를 낸 실적이 있는 재경 동문들에게도 '동창회보'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경동창회로부터 '동창회보' 구독료 3만원을 내지 않은 재경동문에게는 "동창회보"를 보내지 말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아 미납부 동문에게도 이번 419호 '동창회보'까지만 무료로 보내고 다음 420호부터는 보낼 수 없음을 알립니다.

이제 '동창회보'의 안정적인 발행을 위한 구독료 납부자 4,000명 달성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22페이지 도표에 보드시피 2013년도 구독료 납부 인원 3,942명을 달성한 이래 안타깝게도 매년 납부 인원이 급격히 줄어 2016년 2,325명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도에 2,629명으로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재정 형편상 2달에 한번씩 발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박종찬 총동창회장 취임 후 약 5개월만에 작년의 납부 인원에 근접한 2,586명으로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목표 4,000명 달성은 동문역사를 밝게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동문회 발전의 원동력은 선후배간 단단한 결속력인데 이는 공동 목표를 같이 달성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보여줍니다. 우리의 단결력을 총동창회에서 발행하는 '동창회보'는 충실한 내용으로 전 기수들의 소식을 담아 내는 것은 물론, 특히 40회 이후 기수들의 활동 상황을 골고루 담아내 선후배간의 연결 허리층을 보강하고 동문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창회보' 구독료 3만원을 내지 않아 다음 호부터 '동창회보'를 받지 못하는 재경 동문들도 언제든지 총동창회 사무국(전화번호 051-245-7551~3)으로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취임 이후 '선후배간 소통'이라는 새로운 가치 아래 지난 3월25일 총동창회 밴드를 개설해 2,000명 이상의 선후배간 인연을 틔웠고, 신선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일부 동문들을 위한 제한된 소통입니다.

그래서 현재 2달에 1회씩 발행되는 '동창회보'가 각 동기생들의 활동, 유명 동문들의 동정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확실한 자리를 잡아 동문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읽을 거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나아가 동문들이 명문 동문회의 구성원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는 선납부자 ● 총 2,586명 2018. 8. 28.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53-6722-04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박종찬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3회(6명)
송두호 신현익 윤태윤 이안규 정원준 하덕모

4회(9명)
김희수 송호길 양중학 이남규 장수호 정순모
정지근 조성일 황갑생

5회(11명)
김석호 김인택 박장후 박종구 우명수 이문기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최원구 홍관식

6회(18명)
김상엽 김중철 김태환 박웅진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오영은 이강윤 이상기 이해훈 임경택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최석원

7회(28명)
강병희 구택용 김갑성 김광욱 김명관 김삼현
김용우 김중순 김중경 김태배 노상석 박영섭
박환배 배중현 송외득 양종완 오동환 오장은
원용부 윤용우 윤진현 이동우 이창범 임성극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허중호 (김삼현 2019년)

8회(27명)
강성태 김영철 김영환 김재범 문창화 박우상
박재범 박희욱 배기현 배주원 안종열 엄덕양
이윤조 이종택 이준혁 이창규 이현민 이호수
이희순 장혁표 전영배 정금출 최경태 최낙병
최재혁 홍광수 홍기성

9회(24명)
김경희 김기관 김기학 김영국 김철규 김 청
김태영 박영복 박화철 신윤익 안규현 유금열
유병철 이동현 이주한 장동근 전인규 정해돈
조규양 조용길 조이호 지삼봉 최성욱 한동대

10회(37명)
강희윤 김기호 김동민 김상규 김선동 김성규
김용규 박철민 신규태 오강욱 오기봉 윤부환
이계창 이근태 이봉원 이상배 이승영 이승준
이외도 이재순 이정호 임정우 장병태 장인목
장청구 전영대 정무길 정상수 정종만 정 훈
조길수 조상진 최병도 최성열 최순진 하영수
허영오

11회(62명)
강병희 강용대 고한준 공상기 광정출 광태엽
권병용 김기주 김무룡 김삼진 김성규 김수정
김영식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윤택 김인섭
김재근 김재환 김태호 김태홍 김학수 김항근
문정오 박관호 박수경 박용관 박찬순 박희태
서영호 서자윤 성기득 심재룡 심재홍 안강태
양수택 오길홍 오정광 유희수 윤재관 윤태원
이계찬 이근우 이상태 이상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종주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운표
제정오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최득호
하중선 한정준 (박희태 2019년)

12회(76명)
강보순 강수현 강창수 광진영 구진웅 구창회
권시길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두수 김명희
김부생 김부환 김상렬 김석근 김선일 김수원
김영수 김우성 김익도 김중련 김중성 김종일
김지희 김현주 김훈호 박문기 박상도 박영윤
박정윤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섭 백응권
변동만 서병기 손제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안용득 엄태섭 오세정 오수봉 왕한균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상대 이수영 이승문 이승태
이영한 이용언 이용희 이원우 이현달 이환철
임상원 장동석 장지흠 정수복 정영철 정호중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경균 최병훈 추영재
탁해정 허은도 허정욱 홍두표

13회(95명)
강영삼 고송구 고시준 구덕건 권영계 김동호
김만철 김무조 김상치 김신부 김영문 김영호
김장웅 김정균 김정일 김정태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김형태 김홍철 문 창 박길만 박민보
박안남 박양웅 박영주 박원길 박일웅 박정웅
박종택 박진태 박홍일 박홍표 배대결 배정은

백길오 변윤식 서시주 서영웅 성성호 송신의
송창식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신하근 심관섭
안성문 안준수 양길승 오한수 윤기갑 윤정의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경준 이근모 이명진
이범경 이병한 이상문 이상택 이웅재 이준범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람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장용웅 정로상 정문화 정은섭 정종현
제병민 조용갑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부웅
최상호 최성욱 최태환 최 혁 추지석 한관수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황일인 황정대

(이영재 2019년)
14회(70명)
강통삼 권근술 권 명 김덕호 김동규 김동화
김무남 김무용 김재도 김중수 김준우 김창기
김창호 김태희 김형수 김학욱 노수덕 류종일
문운용 박남조 박순일 박중철 박진재 박정홍
백태우 서정환 성이경 손영목 송재현 신기석
신준호 신현호 오태홍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광우 이길미 이동식 이동영
이명재 이수남 이승우 이재돈 이현영 이호근
이훈일 장삼식 전병순 전상배 정선언 정현규
조광명 조규향 조영봉 조정현 진성태 최낙섭
최병태 최병현 최성용 최창락 하문수 한규환
한수길 허 증 황수길 황원재 (진성태 2019년)

15회(73명)
강무송 강민조 강부남 강부부 강정남 강창일
고석기 권승부 김경일 김대영 김소현 김쌍열
김영훈 김옥규 김윤배 김정환 김중태 김중한
김준근 김중광 김중식 김판열 김황영 남기주
박영길 박영길 박영무 박찬호 박철양 박호가
배성훈 배 훈 백승진 서영진 손부홍 신용기
신현영 안경숙 오봉석 윤우경 윤희정 이상호
이선규 이영정 이익일 이정부 이종수 이종일
이종희 이철성 이필연 임영길 장봉도 장중호
정영선 조규성 조영일 조일랑 조진환 최광용
최무길 최병우 최 욱 최원수 최진모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허중덕 홍익찬
황중부 (염영길 2022년)

16회(67명)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원경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광용 김박일 김상용
김상호 김양원 김용진 김정우 김정호 김 조
김중덕 김중길 김태일 김현호 김형석 노원소
박두영 박영수 박용일 박종봉 박준호 박 훈
방수근 서정호 성기식 성진호 손승방 손용석
송규정 송자문 안국정 여성국 영광해 윤희주
이경환 이길홍 이맹립 이무근 이무영 이방소
이성남 이양근 이영재 이재룡 이재연 이창원
임승언 전무갑 정영일 정우광 정원철 정태성
조길우 조원제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황규호
17회(63명)
감정은 강주수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동수
김부근 김상천 김성락 김성우 김용구 김용남
김용정 김준연 김준위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김효남 남궁성은 노동섭 박가식 박영일 박인사
박재구 박 찬 박홍식 서정승 서창석 손성근
송승구 송우근 송인문 송인창 신 중 신희규
여윤대 오종한 윤성욱 윤수성 이근웅 이광석
이수원 이수창 이재형 임우택 장길성 장영석
전경명 전영부 정두호 정랑부 정병렬 정용화
정태일 제양성 조준연 차성철 천용광 최성호
하영수 허진행 황성진

18회(88명)
강대원 강덕용 강만수 강성태 강영호 강인섭
고병현 권영대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용
김귀연 김기섭 김길제 김두환 김병호 김사권
김성건 김영국 김옥길 김용기 김재창 김경래
김종상 김중철 김지호 노정규 류종우 문재민
문창열 박근태 박대웅 박덕봉 박동오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영복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경남 박종구 박종만 박종문 박준성 박호영
백승래 서부원 서재봉 설현기 손찬규 안창범
양동건 오재동 우원호 윤봉수 이근희 이영범
이영호 이충남 이태우 이태준 이형석 임재영
전기준 전병희 전상근 전영석 정구홍 정우용
정재호 정태섭 조성재 차명석 채부영 천두갑
최 인 최재범 최진수 최희영 하영일 허만조
허성태 허영태 허태열 홍창우

19회(84명)
강동완 강준권 강환섭 공기주 권정덕 김경우
김경재 김규하 김덕규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윤 김성진 김순호 김영복 김영우 김영탁
김일천 김재근 김정우 김중기 김중우 김진국
김행복 남진현 노태규 박갑진 박동화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배무삼 배영구 서세복 서승성
석무관 선우남 성환진 손말현 손철수 신동인
신윤철 심영섭 심재구 우치수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상우 이상달 이상환 이용조
이용홍 이장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홍 이춘만 임우근 임재원 장성규 장조훈
장홍의 정규범 정규영 정수남 정용식 정태을
조성환 조재운 진수상 최경석 최화익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허홍욱 홍승표 황대경 황태원
(심재구 2019년)

20회(64명)
강기철 강석근 강위수 강현진 김대업 김두영
김성룡 김성환 김세준 김소신 김영철 김우홍
김일석 김종민 김진환 김태선 김환원 김현태
김형기 김형오 남경열 남기석 목일진 문성채
문시영 민영기 박용덕 박 준 배준태 백완규
백창열 서경석 손춘수 송상윤 신원기 심두수
심원식 여정호 오경석 유근준 윤봉태 윤우성
이수호 이실근 이영오 이우중 임세호 장상배
장춘식 전일준 정규식 정성창 조영철 조운태
차용환 최명호 최석립 최장하 최중경 최 철
한개정 허남균 허주한 홍순태

21회(95명)
강민우 강삼태 강수경 강순석 강욱형 강창수
강태순 구본능 구정모 구현수 권오웅 김기현
김남규 김대웅 김동우 김문건 김상덕 김상하
김영삼 김유건 김익수 김조영 김지호 김창수
김현태 김형동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봉홍 박성렬 박인협 박지민 박재선 박주용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성상철
성정근 신태윤 안상갑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태규 우종득 육화원 윤대희 이도재 이명환
이문수 이상기 이영훈 이익규 이재택 이재호
이재홍 이상규 이준성 이혁 임경범 임성출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성인 정정화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현국 진영천 자동민 최규용
최낙환 최동완 최민석 최은영 최집수 최정림
최종린 탁원령 하영준 한광수 한대운 한승현
한인환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황윤성
(김동우, 임성출, 최낙환 2019년)

22회(79명)
강호일 김광국 김대욱 김도살 김동욱 김명수
김명준 김무술 김성재 김성태 김세근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일준 김정근 김진민 김진철
김창해 김철현 김학균 김해현 남백우 노평호
문성철 박규모 박문화 박승목 박인표 박재구
박재상 박준호 박홍조 배준식 배호원 백봉주
변대식 변종호 부창전 서항용 손연모 손용길
송현준 신중수 안영수 안진환 여상규 오세길
유인조 유재탁 이경상 이병수 이상협 이성모
이유제 이춘식 이홍기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진 조순태 조장현
조흥기 최광욱 최성열 최학봉 하성일 하현성
한경규 한군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인석
홍순욱

23회(80명)
강구현 강창보 고용석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상수 김상영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영철 김윤관 김익근 김정록 김중배 김중훈
김주찬 김중광 김태용 김태홍 도명세 박무열
배종순 배준석 백창영 서승환 손근식 송중송
신경재 신동규 신상희 신언극 안범두 안병을
오도준 유석산 유원형 유진무 윤길원 윤병조
윤종관 윤태규 이기호 이덕남 이동성 이병찬
이부식 이상렬 이상수 이상운 이성환 이수백
이 순 이승현 이영재 이윤석 이창호 장백기
장병규 전상대 전영조 전재홍 정귀출 정기용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정용성 조장래 조함용
채행윤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허근창
허병상 홍영희 (이부식 2020년)

24회(116명)
강기중 강동우 강청홍 광두희 구본열 구자용
권수찬 권영기 권해영 김경남 김도인 김동운
김만복 김병배 김우성 김봉용 김성득 김승탁
김영만 김병민 김영식 김유신 김윤수 김은호
김인구 김인철 김준기 김진윤 김태홍 김학성
김한균 김한태 김효근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노흥덕 문취영 박극재 박맹렬 박성표 박윤성
박창중 박창호 박천호 박해성 박홍규 배종갑
백운룡 변용준 변정규 서정대 서정득 석문식
성총기 손성호 손세영 손인수 손찬호 송수건
신창우 안상수 안형수 양순권 여옥주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윤재인 윤지현 이광호 이동진
이명규 이명복 이상룡 이상우 이상찬 이 수
이영태 이재능 이재성 이종구 이창무 임덕철
임민호 장민재 장수현 장원서 전대현 전용우
정동화 정명근 정명동 정무열 정수철 정영석
정용호 정윤상 조영수 조용화 조재진 주승환
주점권 주정규 지인덕 진병건 차문공 최원호
최인우 최현규 태창업 하 욱 하재갑 한상렬
한태운 황성훈

25회(158명)
강석철 고명식 광동원 권태용 김건우 김광돈
김광배 김구화 김규진 김길수 김남일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 령 김문국 김봉철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영영
김영의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우환 김익수 김정학 김중국 김중만
김중윤 김중현 김진우 김진철 김창욱 김창호
김철수 김철수 김태선 김형근 노태호 문재인
박거환 박근수 박경립 박광용 박동건 박맹우
박문갑 박성길 박세철 박원규 박을영 박인동
박종기 박종찬 박춘준 박홍기 배기동 배대관
배동명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국 석창태 손국영 손기천 송기현 송무룡
송영근 송정규 신영학 신성기 신성한 신현대
심영재 안대상 안영복 안희석 양승욱 양시욱
엄수훈 여성조 예종복 오양득 옥동훈 우경욱
우상조 우진태 유용기 윤종렬 윤태석 이계성
이근만 이대우 이동석 이동익 이명철 이민희
이상식 이상화 이성호 이수영 이신호 이우석
이찬형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학준 이한식
이홍익 임무홍 임상택 임영대 장선근 장세훈
전섭태 전영주 정무동 정신배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광도 조대우 조병욱 조 익
조판제 좌상봉 주재길 차인환 최경호 최동하
최병주 최재환 최차환 최태동 탁준길 태명산
하성룡 한석정 한준석 허영형 허 택 황근태
황 철 황호선 (박동근, 황호선 2019년)

26회(95명)
강수남 강영녕 고석훈 구영호 권영인 김광식
김기성 김기표 김두찬 김상현 김 석 김영섭
김용찬 김원정 김재용 김정무 김중우 김주병
김태규 김태년 김택영 김호용 남인희 민창현
박경수 박경재 박근석 박동조 박두식 박상호

2018년도 회비 납부 현황

● 회장 박종찬 5,000만원

● 자문위원

오완수(11), 서부원(18), 조성재(18), 남진현(19), 박용덕(20), 강창수(21), 이재호(21), 최점수(21), 유재진(22), 김영기(23), 이부식(23), 곽두희(24), 노상우(24), 박극제(24), 원동희(24)

이상 100만원

● 운영위원회

김길수(25), 김상수(25), 김익수(25), 김종현(25), 김진철(25), 박세철(25), 손기천(25), 송영근(25), 오양득(25), 윤태석(25), 이대우(25), 이명철(25), 이상화(25), 장세훈(25), 제영성(25), 조판제(25),

최치환(25), 한준석(25), 허택(25), 황호선(25)

이상 100만원

● 집행분과위원회

송정규(25), 김대욱(29), 박성철(29), 김종명(29), 김현태(30), 이병태(31), 박명진(33), 이진호(34), 정윤성(35), 박진용(36), 김태호(38), 윤경만(38), 박인석(39), 한수열(40), 이양걸(41)

이상 200만원

● 부회장

서병수(25), 박장현(26), 손영수(26), 유영호(27), 구영소(28), 노영현(28), 이원철(28), 최강호(28),

김용채(29), 손영보(29), 오세용(29), 이문열(29), 이승호(29), 정길(29), 최영식(29), 서하수(30), 윤성덕(30), 윤인태(30), 정경목(30), 최우철(30), 남기태(31), 류명석(31), 박종규(31), 박종호(31), 손영태(31), 신수열(31), 오민일(31), 오용환(31), 최효식(31), 홍성수(31), 김법영(33), 류장근(33), 장인화(35), 양호진(36), 최승호(36), 유호섭(37), 김현민(38), 심재영(38), 오희진(38), 이종명(38), 조석태(38), 주영록(38), 박근태(39), 우영환(40), 전삼록(41), 윤종서(46)

이상 100만원

총 97명 (합계 16,100만원)

박오욱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장현 박재욱 박효대 배갑상 서준희 서치호 서현수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영수 손욱호 신기용 신대철 신동춘 심승택 안길호 양국명 왕정일 왕호석 윤수현 이경호 이규생 이규용 이명진 이상원 이상근 이상춘 이재봉 이정근 이주형 이창식 이희준 임정호 임철호 장경재 장인철 정국근 정영륜 정익교 정한경 정현준 조만석 조일제 주규철 지용섭 최명해 최성락 최성수 최수일 최의수 하성봉 하원규 하주근 한창학 허갑석 허진호 현동우 홍순하 홍청근 황광수

27회(71명)

강봉호 강태영 강강호 강경진 김광철 김근우 김명기 김민수 김병열 김병욱 김병철 김병추 김상문 김안석 김명삼 김우진 김원용 김일리 김재연 김정희 김중도 김중욱 김중하 김진명 김춘영 김태우 김태운 김학희 김호균 류재걸 문규상 문두찬 박규욱 박병주 박찬석 박춘규 박치호 반정열 배효택 백민호 변재국 서기룡 신환원 안종택 양태종 오봉민 유성모 유영상 유영호 윤모성 윤문태 윤석건 윤일근 윤종락 윤지한 이민부 이성득 이원호 이인규 이천식 이현 장인철 장창호 정두식 조민제 조용수 최용수 최인성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28회(78명)

강현안 구영소 권기택 권수원 김관세 김만중 김명철 김부윤 김선경 김영철 김용석 김익성 김인준 김준배 김준연 김철수 김태완 김형진 김홍규 노상천 노영현 리신호 민교식 박병곤 박성권 박세혁 박영규 박윤철 박종기 박진화 백영호 서기희 서정환 석인식 신중현 인재홍 안풍 양동욱 엄보용 엄재홍 오현석 오호석 옥상근 유봉수 유승일 윤경섭 윤대주 윤명수 윤일희 이만수 이민우 이양훈 이윤남 이원철 이윤규 이정권 이정기 이종대 이종만 이흥오 임익성 전광병 전선국 전진학 정두현 정영주 정인식 조대현 조석태 주중목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영호 한명재 허남식 허명근 황장두

29회(108명)

강대용 강병철 쾌대섭 권오영 금시환 김광우 김근덕 김기수 김기영 김대영 김대욱 김병희 김석윤 김세원 김영 김영훈 김영희 김용채 김인술 김재현 김정암 김종권 김종명 김종진 김철오 김태완 김호성 김흥기 문명환 박국인 박근우 박동일 박동흙 박명섭 박병률 박병준 박병태 박상길 박성철 박인규 박창연 배진영 배현호 백성욱 사공근 서봉교 서석철 서영학 손영보 손태완 손홍근 송희태 신호범 신홍기 안창홍 양승오 오세용 윤석희 윤욱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병건 이상진 이석조 이성열 이승우 이승호 이재성 이정윤 이종포 이준환 이충원 임무택 임봉성 임채병 장만 전현수 정기조 정길 정대현 정란 정성훈 정세영 정윤수 정중기 정진현 정희용 조승제 조창열 조한욱 주재희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범수 최영식 최원락 최정만 최종열 하현태 한만수 한휘철 허광욱 현계성 황맹균 황유명

(곽태섭, 송희태 2019년, 황유명 2020년)

30회(100명)

강석철 권용택 김경수 김관일 김기섭 김기수 김기업 김백수 김상직 김성복 김성은 김승대 김영일 김인섭 김재일 김중곤 김중진 김창근 김해곤 김현태 남영호 노동춘 도문성 문장호 박관식 박규완 박병규 박성태 박원호 박인달 박재백 박정태 박중배 박희관 배기경 배승한 백기연 변윤수 서강태 서덕영 서민석 서현덕 신교선 신규균 신유원 심풍수 오경일 오광태 오홍조 옥유전 유재일 유현덕 윤용규 윤인태 이경우 이기환 이명건 이선광 이성기 이수성 이인호 이종욱 이진걸 이태봉 이호걸 이호준 이환기 이준승 장호영 장훈상 전은석 전준호 정경목 정광덕 정기룡 정성원 정승진 정영호 정우정 정채화 조경제 조병훈 조승환 채영재 최거훈 최병철 최병태 최영규 최우철 최욱 최원수 최진근 하규양 하영동 하재명 한호용 허선행 허준 홍인기 황철민 (이기환 2019년)

31회(79명)

고영호 공종렬 권해철 김기정 김만 김명우 김병기 김성원 김시현 김영철 김영학 김원태 김정관 김정덕 김중호 김태근 김판덕 김형수 김호성 김효연 남기태 남철우 노성현 류명석 문성일 민중현 박경수 박세환 박인정 박종규 박중호 박준화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배정우 서규영 서동균 서수교 서태고 손영태 손은정 신상하 신수열 심중식 안중수 오민일 옥치호 윤석중 윤정수 이병태 이상일 이승원 임중태 장재훈 장정철 장평우 정무석 정용식 정용정 정원규 조성근 조영기 천장호 최문삼 최부영 최상규 최인목 최재선 최주홍 최진섭 최해영 최효식 하명수 하병관 하학렬 한영오 허일현 홍성수

32회(41명)

강기상 기영수 김동균 김영길 김종판 김태홍 민길식 박성철 박운대 박종규 박종우 박중호 박진원 배중찬 설원실 송승익 신국선 신철호 신한국 안영호 양문성 양성기 엄호선 오경명 우득현 유성대 이문영 이병훈 이성훈 이재수 이정주 임인섭 임재균 장기호 전성환 정용운 정의주 정재중 최중호 최호영 허정 (송승익 2019년)

33회(45명)

공진환 김기산 김령환 김법영 김원일 김재도 김재선 김중만 김중욱 김종인 김철 김태훈 김혁 남경태 노경호 류장근 박명진 박성병 박용득 박중운 박창완 박태중 배성만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성림 송종현 안동문 안영훈 예영찬 오향선 이동근 이윤조 이은우 이진우 이형근 정아준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웅남 최홍원 황경원 (김중만, 최웅남 2019년)

34회(39명)

강승기곽수근 구본철 김동욱 김두섭 김범석 김상갑 김신중 김주섭 김중근 김태하 김현범 노인선 박기훈 박재욱 박철웅 박철호 백운창 송환성 옥재명 이강희 이상운 이상영 이용희 이재완 이준권 이진호 장경원 장현기 정노혁 정성근 정하태 조문국 조선 조시형 최대한

최용철 태일산 황호용 (정노혁, 정아태 2019년) 35회(35명)

김관우 김기철 김동인 김동일 김선택 김우경 김홍곤 나동욱 류인수 박세중 백현호 서상욱 서석권 성규원 성창용 안종엽 안종일 안창돈 오시영 이기석 이남기 이영오 이종찬 이춘기 이호성 임성배 장우진 장인화 정성윤 정효영 주귀홍 진호준 최기평 하승훈 황용순

36회(55명)

공진식 권일복 김규선 김길호 김막 김영훈 김용진 김용진 김중백 김중오 김종일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박승근 박영준 박용철 박진용 박철중 박형철 방진영 서광원 신승렬 신용덕 안재익 양호진 오정광 윤경준 이동희 이상권 이상준 이성호 이원석 이정영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영학 임창섭 임창의 장창용 정갑영 정병기 정병철 정윤희 정창규 제재환 지동섭 차대일 최덕희 최상도 최승호 하재철 한형식 홍의창 (한병식 2019년)

37회(32명)

강성욱 권기원 김상현 김영근 김영태 김원범 김형기 김화중 노태건 문진형 문희영 박만규 성창수 소수현 송경철 신우진 유호섭 윤태환 이주홍 이호진 장원익 정재호 조상현 조성각 조영구 조용철 조현철 탁낙준 하태민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38회(44명)

강금성 강병곤 곽동열 구동주 김경곤 김두호 김문철 김상수 김원철 김태호 김현민 류인식 문귀상 문익현 박원 박이현 박정민 박준표 박현수 서승헌 손태환 신동훈 심재영 심춘 안길수 오승언 오희진 이동훈 이수호 이종명 이창호 이태훈 이희수 정원제 정인철 정재형 정준기 조석태 조수용 조용철 차성철 최휴경 한경민 한재필

39회(57명)

고봉정 김경곤 김대중 김병기 김영부 김용태 김윤홍 김중엽 김천술 김태호 김형보 노성수 문기호 박근태 박인식 박중국 박준근 박진열 박평오 박기현 서은식 송기정 송영호 심왕섭 안승진 안영준 양원정 엄일규 여동섭 오선호 오충현 원우광 윤동배 윤상훈 윤원욱 이기용 이배근 이상학 이승기 이원영 이종욱 이종운 임성욱 임용찬 장동수 장영욱 장윤혁 장훈 정순환 정연설 정영철 정우영 정의창 정진해 지홍준 천운중 황영진

40회(33명)

강창지 권귀동 김근영 김병기 김성진 김영진 김중철 김중강 문태영 박근성 박우성 박훈재 배병환 배영진 서정민 심철 안경진 염점철 옥진형 우영환 이강욱 이광이 기이영철 이정삼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장정욱 최치언 최태훈 한수열 황성수

41회(29명)

강석희 강훈 김봉준 김신욱 김인수 김형률 박상환 박정기 박정의 백선민 성종훈 성찬기 송인환 원태용 이경석 이경호 이광희 이양걸 이종민 임병호 장윤호 전삼록 조재봉 천성원

하범중 한정호 허종윤 허중희 허치회 42회(17명)

김광철 김도형 김동수 김재용 김정언 김태구 남화정 박동식 박일수 백영환 서정호 신동복 신봉준 이정택 정홍준 제용환 제정환

43회(14명)

강병규 구명진 김성수 김영희 김중식 김진수 박형구 심문섭 이용상 이호영 전수표 정효범 최한림 허재원

44회(12명)

박민수 배봉건 송동근 안병규 우도균 이동렬 임정훈 임지훈 조영호 조진현 탁정환 한수성

45회(5명)

김상수 김현호 신상왕 이수태 최재근

46회(30명)

강남구 권성기 권진근 김규태 김대기 김동욱 김동희 김백권 김부규 김승완 김태영 김태준 김희택 문정기 백경택 서승진 신정일 안명기 오영훈 윤경환 윤성근 이동수 이동엽 이성민 장윤성 최경근 최원석 한영길 홍이준 황상철 (이상민 2019년, 한영길 2022년)

47회(13명)

강백중 고달우 김재성 김하윤 배준수 서영우 성상용 이민형 이소택 정민호 정신정하윤 천영훈 (성상용 2020년)

48회(1명) 권태현

49회(42명)

강동준 김덕호 김민상 김성훈 김정욱 김종배 김태형 김태훈 김학균 김현우 김현중 노성욱 박시영 박시원 박재승 박재홍 배기용 배승한 서인석 손성호 신종국 안명진 안형수 윤정암 이동훈 이상욱 이상형 이충현 이현명 임기환 장민건 장재익 장형철 정우근 정일권 제민진 조영철 조진호 최유탄 최진영 홍민호 홍영근 (이충현 2019년)

50회(34명)

강철 구원모 김기원 김동현 김봉규 김석훈 김성수 김인태 김영환 김재용 김재윤 김정희 노재훈 박인창 박종현 백광선 백승환 서석진 안동운 유우진 이기승 이상구 이인준 이종길 전익환 정재우 정희석 차승준 최정민 최호진 하수성 허창호 홍광표 황국현 (박종현 2027년, 백광선 2019년)

51회(16명)

강승호 구민석 김기호 김대우 김동규 도희종 박보순 반길호 손현직 신석진 신현식 염권아 오준호 이건영 이현수 정유석

52회(4명) 김민철 김상곤 이현환 한중현

53회(3명) 문희규 이원준 한동인

54회(4명) 고강인 박신우 양현진 양형욱

55회(2명) 김태련 이향림

58회(1명) 김현윤

67회(1명) 황유광(2019년)

69회(1명) 정민기 (정민기 2023년)

경고학교운영위원회 등(1명) 명예회원 박희규(2020년)

기수 & 이름 확인불명 22명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총동창회)

2018년 6월 20일까지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故김근준	(1회)	100만원	김성찬	(12회)	50만원	김승현	(17회)	100만원	박석도	(18회)	20만원	김문관	(22회)	20만원	이명철	(25회)	100만원	송명석	(28회)	20만원	김종휘	(30회)	100만원
김희철	(3회)	30만원	김수원	(12회)	10만원	김용구	(17회)	100만원	박준성	(18회)	20만원	김성재	(22회)	50만원	강영녕	(26회)	200만원	엄보용	(28회)	100만원	김창근	(30회)	30만원
송두호	(3회)	1000만원	김용호	(12회)	10만원	김용남	(17회)	10만원	황광건	(18회)	200만원	김우홍	(22회)	300만원	권중대	(26회)	100만원	엄재홍	(28회)	200만원	김해근	(30회)	200만원
김주호	(4회)	20만원	김우성	(12회)	10만원	김조일	(17회)	10만원	강영범	(19회)	10만원	김일준	(22회)	30만원	김두천	(26회)	100만원	옥상근	(28회)	200만원	김현태	(30회)	100만원
박석만	(4회)	20만원	김종수	(12회)	50만원	김준연	(17회)	100만원	김경재	(19회)	100만원	김정근	(22회)	200만원	김상현	(26회)	500만원	옥준원	(28회)	100만원	박동욱	(30회)	50만원
박흥기	(4회)	30만원	김종원	(12회)	10만원	김준위	(17회)	100만원	김문기	(19회)	20만원	김진영	(22회)	100만원	김우갑	(26회)	50만원	윤경섭	(28회)	200만원	박원호	(30회)	100만원
양종학	(4회)	300만원	김종일	(12회)	10만원	김지창	(17회)	30만원	김봉호	(19회)	500만원	김학균	(22회)	1000만원	김중우	(26회)	200만원	이경모	(28회)	200만원	박재백	(30회)	30만원
장수호	(4회)	100만원	김진갑	(12회)	20만원	김창운	(17회)	300만원	김삼도	(19회)	10만원	노세현	(22회)	260만원	김태권	(26회)	10만원	이만수	(28회)	200만원	박정태	(30회)	30만원
정순모	(4회)	200만원	김철기	(12회)	100만원	김태호	(17회)	20만원	김석윤	(19회)	20만원	민훈기	(22회)	10만원	김 형	(26회)	200만원	이만재	(28회)	100만원	박철우	(30회)	100만원
정인조	(5회)	100만원	김춘광	(12회)	10만원	김효남	(17회)	10만원	김양근	(19회)	50만원	박상갑	(22회)	50만원	김호용	(26회)	200만원	이승하	(28회)	100만원	서강태	(30회)	110만원
김윤용	(6회)	10만원	김호구	(12회)	10만원	문석웅	(17회)	50만원	김영우	(19회)	100만원	박언표	(22회)	100만원	박권병	(26회)	200만원	이원용	(28회)	100만원	서민석	(30회)	60만원
나오연	(6회)	100만원	남기용	(12회)	1000만원	박가식	(17회)	100만원	김정국	(19회)	10만원	박재상	(22회)	2000만원	박상호	(26회)	1550만원	이원철	(28회)	400만원	서복천	(30회)	100만원
노재형	(6회)	10만원	박영윤	(12회)	10만원	박신도	(17회)	200만원	김중기	(19회)	10만원	박재인	(22회)	50만원	박재욱	(26회)	500만원	임재덕	(28회)	100만원	서재원	(30회)	30만원
오영은	(6회)	200만원	박용운	(12회)	10만원	박영두	(17회)	20만원	김철호	(19회)	100만원	손연모	(22회)	100만원	배용호	(26회)	50만원	정성목	(28회)	200만원	서하수	(30회)	200만원
이길상	(6회)	30만원	박정윤	(12회)	10만원	박영일	(17회)	10만원	남기진	(19회)	100만원	유재진	(22회)	1000만원	성재업	(26회)	50만원	정영주	(28회)	50만원	석대식	(30회)	30만원
이희문	(6회)	30만원	박종정	(12회)	100만원	박인사	(17회)	100만원	박갑진	(19회)	30만원	이동열	(22회)	100만원	성재일	(26회)	200만원	정해영	(28회)	100만원	송영환	(30회)	100만원
임경택	(6회)	10만원	박창수	(12회)	30만원	박재구	(17회)	20만원	박동화	(19회)	300만원	장무성	(22회)	100만원	양준영	(26회)	50만원	최강호	(28회)	500만원	송한식	(30회)	30만원
장재수	(6회)	20만원	안상직	(12회)	30만원	박종구	(17회)	100만원	박상식	(19회)	50만원	장상복	(22회)	1000만원	엄윤섭	(26회)	100만원	한명재	(28회)	200만원	신범주	(30회)	30만원
정건용	(6회)	10만원	안영규	(12회)	20만원	박청홍	(17회)	100만원	박종화	(19회)	100만원	장성덕	(22회)	1000만원	왕정일	(26회)	100만원	한수범	(28회)	50만원	신영주	(30회)	30만원
정상철	(6회)	30만원	안영배	(12회)	10만원	백철균	(17회)	10만원	성낙출	(19회)	100만원	장영근	(22회)	100만원	이경호	(26회)	100만원	허영철	(28회)	200만원	신윤원	(30회)	30만원
정세동	(6회)	20만원	엄태섭	(12회)	30만원	서재홍	(17회)	20만원	신윤철	(19회)	30만원	정해진	(22회)	50만원	이규생	(26회)	70만원	김기영	(29회)	50만원	안종화	(30회)	100만원
최상해	(6회)	10만원	오세정	(12회)	20만원	서정승	(17회)	200만원	안정모	(19회)	20만원	조운재	(22회)	200만원	이상원	(26회)	200만원	김대욱	(29회)	3000만원	오경태	(30회)	10만원
허택	(6회)	30만원	옥계한	(12회)	100만원	손성근	(17회)	200만원	이상달	(19회)	100만원	최학봉	(22회)	100만원	이순철	(26회)	50만원	김도태	(29회)	30만원	왕순모	(30회)	30만원
이우호	(7회)	50만원	왕한균	(12회)	100만원	송유근	(17회)	30만원	이용만	(19회)	10만원	허범도	(22회)	1000만원	이영덕	(26회)	100만원	김석윤	(29회)	30만원	유영록	(30회)	10만원
故공상태	(8회)	100만원	윤성희	(12회)	12만원	송인문	(17회)	100만원	이용홍	(19회)	1000만원	김동욱	(23회)	200만원	정거돈	(26회)	100만원	김영기	(29회)	10만원	유재일	(30회)	10만원
구본섭	(8회)	100만원	이수영	(12회)	10만원	신정아	(17회)	10만원	이장희	(19회)	100만원	김동욱	(23회)	50만원	정국근	(26회)	100만원	김인술	(29회)	100만원	윤기승	(30회)	50만원
김봉길	(8회)	500만원	이승훈	(12회)	10만원	신 중	(17회)	30만원	장홍의	(19회)	500만원	김상영	(23회)	50만원	정익교	(26회)	100만원	김정암	(29회)	100만원	윤성덕	(30회)	1000만원
박동열	(8회)	1000만원	이용언	(12회)	50만원	안정의	(17회)	30만원	최연근	(19회)	10만원	김영기	(23회)	1억200만원	조일재	(26회)	50만원	김종명	(29회)	30만원	윤인태	(30회)	50만원
안종렬	(8회)	100만원	이원우	(12회)	100만원	여성열	(17회)	10만원	최화익	(19회)	10만원	김용기	(23회)	20만원	최수일	(26회)	50만원	박동일	(29회)	50만원	윤준순	(30회)	30만원
윤상현	(8회)	10만원	임정명	(12회)	30만원	오태식	(17회)	100만원	황태경	(19회)	20만원	김용선	(23회)	30만원	하원규	(26회)	500만원	박동혁	(29회)	200만원	이광봉	(30회)	30만원
이윤조	(8회)	100만원	정대식	(12회)	10만원	우기남	(17회)	50만원	황태원	(19회)	1000만원	김정록	(23회)	20만원	한원우	(26회)	100만원	박상길	(29회)	100만원	이광희	(30회)	20만원
장혁표	(8회)	100만원	정영철	(12회)	200만원	윤성욱	(17회)	500만원	황호균	(19회)	100만원	김중광	(23회)	100만원	하주근	(26회)	50만원	박성철	(29회)	200만원	이기환	(30회)	100만원
김영국	(9회)	10만원	최병준	(12회)	10만원	윤수성	(17회)	30만원	강석근	(20회)	300만원	김태용	(23회)	100만원	26회 구형회	100만원	박인평	(29회)	50만원	이명건	(30회)	30만원	
김종호	(9회)	50만원	최병훈	(12회)	10만원	이건우	(17회)	100만원	강영환	(20회)	10만원	김 현	(23회)	30만원	김진철	(27회)	100만원	배진영	(29회)	100만원	이영준	(30회)	30만원
김태영	(9회)	10만원	최신일	(12회)	20만원	이성흙	(17회)	30만원	김세준	(20회)	100만원	노영배	(23회)	200만원	류재결	(27회)	10만원	사공운근	(29회)	30만원	이인길	(30회)	50만원
박당희	(9회)	20만원	탁해정	(12회)	10만원	이세복	(17회)	1000만원	김원울	(20회)	10만원	박수갑	(23회)	100만원	문두찬	(27회)	500만원	송희태	(29회)	50만원	이학수	(30회)	700만원
성백규	(9회)	10만원	하일민	(12회)	30만원	이수창	(17회)	100만원	김일석	(20회)	100만원	서영수	(23회)	100만원	윤종락	(27회)	10만원	양승오	(29회)	80만원	이한수	(30회)	20만원
신석현	(9회)	20만원	한춘배	(12회)	10만원	이우기	(17회)	10만원	김태선	(20회)	300만원	서한현	(23회)	10만원	이요섭	(27회)	30만원	윤종경	(29회)	150만원	이환기	(30회)	30만원
이대규	(9회)	100만원	김정성	(13회)	30만원	이일영	(17회)	10만원	김태영	(20회)	500만원	손근식	(23회)	100만원	이 현	(27회)	10만원	윤형근	(29회)	50만원	인준승	(30회)	20만원
이영구	(9회)	10만원	이경재	(13회)	100만원	이정보	(17회)	10만원	김형오	(20회)	1000만원	송중송	(23회)	50만원	한수길	(27회)	200만원	이경호	(29회)	100만원	임영수	(30회)	50만원
한동대	(9회)	50만원	이정명	(13회)	30만원	이종길	(17회)	10만원	노기태	(20회)	500만원	신상희	(23회)	100만원	27회 동기회(60명)		이석조	(29회)	500만원	임영호	(30회)	30만원	
황영선	(9회)	20만원	정철기	(13회)	30만원	이종혁	(17회)	100만원	(경고 직접 기부)			안병울	(23회)	20만원	2740만원	이승호	(29회)	100만원	장영조	(30회)	30만원		
김상국	(10회)	20만원	황일인	(13회)	100만원	이형우	(17회)	100만원	박병철	(20회)	500만원	안병화	(23회)	20만원	LA지역 27회 동기회(4명)		이종포	(29회)	50만원	정영호	(30회)	100만원	
김선동	(10회)	20만원	김경일	(15회)	1000만원	장승구	(17회)	200만원	박형준	(20회)	100만원	안성민	(23회)	100만원	400만원	임광열	(29회)	100만원	정승진	(30회)	30만원		
김성규	(10회)	50만원	서정욱	(15회)	10만원	전경명	(17회)	100만원	배서호	(20회)	200만원	옥치범	(23회)	300만원	구영소	(28회)	500만원	임상훈	(29회)	50만원	정채화	(30회)	60만원
박재경	(10회)	10만원	손부홍	(15회)	500만원	정량부	(17회)	100만원	백문찬	(20회)	100만원	원인건	(23회)	200만원	김관세	(28회)	100만원	전장철	(29회)	100만원	천성일	(30회)	10만원
박종문	(10회)	20만원	이상모	(15회)	30만원	정태일	(17회)	100만원	신원기	(20회)	200만원	육병천	(23회)	20만원	김기태	(28회)	300만원	장 만	(29회)	100만원	최상호	(30회)	50만원
신대수	(10회)	20만원	임영길	(15회)	100만원	정해표	(17회)	10만원	이실근	(20회)	100만원	윤순현	(23회)	200만원	김만중	(28회)	300만원	정 길	(29회)	100만원	최영규	(30회)	20만원
오강욱	(10회)	200만원	하정부	(15회)	10만원	제양성	(17회)	50만원	장상배	(20회)	300만원	이동성	(23회)	100만원	김명영	(28회)	200만원	정성훈	(29회)	100만원	최우철	(30회)2억500만원	
이봉원	(10회)	10만원	한해수	(15회)	1000만원	조용운	(17회)	30만원	장춘식	(20회)	10만원	이문희	(23회)	200만원	김명준	(28회)	100만원	조승제	(29회)	100만원	(2억 경고 직접 기부)		
이언희	(10회)	20만원	강종국	(16회)	10만원	조종언	(17회)	500만원	정규식	(20회)	300만원	이병찬	(23회)	300만원	김부윤	(28회)	100만원	황유명	(29회)	30만원	최재봉	(30회)	100만원
임호용	(10회)	20만원	강진중	(16회)	10만원	천용광	(17회)	10만원	정용환	(20회)	300만원	이상수	(23회)	50만원	김상정	(28회)	100만원	강석철	(30회)	30만원	추태명	(30회)	10만원
전영대	(10회)	20만원	김상호	(16회)	100만원	최만식	(17회)	5000만원	차상근	(20회)	200만원	이창호	(23회)	100만원	김용석	(28회)	110만원	권영인	(30회)	30만원	하규양	(30회)	100만원
정승석	(10회)	50만원	박춘호	(16회)	10만원	최성호	(17회)	1000만원	채경석	(20회)	200만원	전영조	(23회)	200만원	김정유	(28회)	200만원	권용택	(30회)	50만원	하전근	(30회)	10만원
조양제	(10회)	1000만원	여성국	(16회)	10만원	추봉실	(17회)	10만원	최장하	(20회)	300만원	전원익	(23회)	30만원	김중섭	(28회)	100만원	구율석	(30회)	10만원	허영재	(30회)	30만원
허영오	(10회)	200만원	강주수	(17회)	10만원	하영수	(17회)	300만원	한기원	(20회)	100만원	정상건	(23회)	200만원	김중성	(28회)	250만원	김경수	(30회)	30만원	황철민	(30회)	100만원
공상기	(11회)	100만원	권경술	(17회)	100만원	허중언	(17회)	30만원	허규판	(20회)	1000만원	조현표	(23회)	50만원	김준배	(28회)	100만원	김기섭	(30회)	100만원	30회 울산동기회	450만원	
김재근	(11회)	30만원	김길호	(17회)	100만원	황중부	(17회)	10만원	허남균	(20회)	300만원	채행윤	(23회)	100만원	김준연	(28회)	200만원	김기수	(30회)	10만원	공광국	(31회)	50만원
백연균	(11회)	30만원	김동수	(17회)	500만원	현태일	(17회)	100만원	강창수	(21회)	500만원	최인식	(23회)	50만원	김형진	(28회)	250만원	김기업	(30회)	50만원	공종렬	(31회)	12만원
심재룡	(11회)	120만원	김동조	(17회)	10만원	17회마산동기회			김성환	(21회)	300만원	하복진	(23회)	20만원	김홍중	(28회)	100만원	김백수	(30회)	30만원	권해철	(31회)	12만원
강수현	(12회)	200만원	김두백	(17회)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총동창회)

2018년 6월 21일 ~ 2018년 8월 28일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성명	기수	납부액	
박석도(18)		30만원													
권두성(38)		3,000만원	- 소계 : 3,030만원		- 총 누계금액 : 13억7,437만원										
김정택(31회)	12만원	손진기(31회)	12만원	조현우(31회)	12만원	김종만(33회)	20만원	이동희(36회)	30만원	강병오(41회)	10만원	조원호(41회)	10만원	사하지역동창회	300만원
김종호(31회)	120만원	신상하(31회)	12만원	천장호(31회)	12만원	김종인(33회)	12만원	임창섭(36회)	30만원	강석희(41회)	10만원	천성원(41회)	10만원	샌프란시스코동문	50만원
김진국(31회)	12만원	신수열(31회)	12만원	최경우(31회)	32만원	류장근(33회)	100만원	정인석(36회)	30만원	김기영(41회)	10만원	최호열(41회)	10만원	(9회 조동훈, 윤종대, 11회 추	
김태근(31회)	100만원	심규열(31회)	12만원	최봉근(31회)	12만원	류홍영(33회)	30만원	김길영(37회)	20만원	김병성(41회)	20만원	추교용(41회)	30만원	기석, 박병호, 12회 최수웅,	
김판덕(31회)	12만원	심재홍(31회)	12만원	최상규(31회)	12만원	박명진(33회)	7000만원	김원범(37회)	10만원	김봉준(41회)	30만원	허치회(41회)	50만원	14회 정조용, 김철규, 21회	
김현주(31회)	12만원	안기수(31회)	24만원	최재호(31회)	12만원	박성병(33회)	10만원	박용진(37회)	50만원	김형률(41회)	50만원	홍동훈(41회)	30만원	손석보, 양경현, 정갑식, 김	
김현율(31회)	12만원	안우현(31회)	60만원	최진섭(31회)	200만원	백수현(33회)	50만원	양귀수(37회)	10만원	남관희(41회)	30만원	홍석우(41회)	50만원	수라, 하재청, 23회 방기준,	
남기태(31회)	200만원	오민일(31회)	300만원	최해영(31회)	12만원	서재영(33회)	100만원	조영규(37회)	20만원	류지섭(41회)	30만원	41회 산악회	30만원	26회 육승주)	
남철우(31회)	60만원	오용환(31회)	120만원	최효식(31회)	60만원	송종현(33회)	100만원	홍병일(37회)	10만원	박정기(41회)	20만원	42회 동기회	200만원	시카고동문	107만원
류명석(31회)	100만원	윤정수(31회)	20만원	하명수(31회)	30만원	신용준(33회)	10만원	홍원석(37회)	10만원	백선민(41회)	10만원	이용상(43회)	10만원	(22회 김정수 회장 외	
박경수(31회)	200만원	이병태(31회)	100만원	하학열(31회)	120만원	이순환(33회)	1000만원	황태윤(37회)	10만원	변영호(41회)	10만원	김진수(43회)	42만원	용마회	190만원
박석기(31회)	100만원	이석우(31회)	12만원	한광규(31회)	12만원	이형근(33회)	50만원	제37회 동기회	200만원	신동진(41회)	20만원	최성필(43회)	40만원	(시창91만, 사하구청45만,	
박석두(31회)	100만원	이승진(31회)	12만원	허일현(31회)	12만원	정인실(33회)	10만원	곽동열(38회)	10만원	안광근(41회)	10만원	44회 동기회	500만원	서구청54만)	
박인정(31회)	12만원	이채웅(31회)	24만원	홍성수(31회)	120만원	최영두(33회)	12만원	박준표(38회)	20만원	유수호(41회)	10만원	장성익(45회)	50만원	재동경문회200만원	
박종규(31회)	100만원	장건호(31회)	12만원	김창범(32회)	20만원	한상봉(33회)	100만원	오희진(38회)	10만원	윤성보(41회)	20만원	47회 동기회(26명)		김정욱전 경총 재직 교사)	
박희암(31회)	12만원	장성호(31회)	12만원	박영욱(32회)	30만원	34회 동기회	1000만원	이종명(38회)	300만원	윤성환(41회)	10만원		300만원	100만원	
배정우(31회)	12만원	장재훈(31회)	12만원	이병준(32회)	100만원	오상민(34회)	30만원	김도경(39회)	20만원	이경석(41회)	50만원	박종현(50회)	100만원	남석해전 경고 재직 교사)	
서동균(31회)	12만원	장평우(31회)	300만원	최춘호(32회)	100만원	이재환(34회)	500만원	김윤홍(39회)	30만원	이경호(41회)	30만원	김경원(54회)	10만원	30만원	
서수교(31회)	100만원	정 문(31회)	120만원	허 규(32회)	10만원	이진호(34회)	200만원	김진호(39회)	20만원	이양걸(41회)	200만원	故표종민(64회)	500만원	신길송(기수불명)	18만원
서태교(31회)	100만원	정용정(31회)	50만원	허재창(32회)	30만원	김동인(35회)	10만원	박인석(39회)	100만원	이종민(41회)	10만원	故박태현 은사(박치호, 27회)		기 타(이름불명)	3만원
손영태(31회)	1억원	정인화(31회)	12만원	32회 동기회	200만원	김병수(35회)	10만원	양정교(39회)	10만원	이주해(41회)	30만원		1000만원		
(경고 직접 기부)		정정남(31회)	132만원	계동원(33회)	30만원	이남기(35회)	10만원	이영수(39회)	10만원	이준석(41회)	10만원	김해지역동창회	300만원		
성오용(31회)	12만원	정철수(31회)	500만원	김기산(33회)	70만원	황용순(35회)	10만원	한성호(39회)	10만원	임병호(41회)	10만원	뉴질랜드동창회	50만원		
손은정(31회)	12만원	조성근(31회)	12만원	김법영(33회)	3000만원	김영훈(36회)	100만원	김영진(40회)	10만원	장익조(41회)	10만원	부산교통공사용마회			
손정수(31회)	24만원	조영기(31회)	24만원	김재선(33회)	100만원	김철원(36회)	100만원	이영철(40회)	10만원	정필상(41회)	10만원		100만원	- 합계 : 13억4,407만원	

2018년 동창회보구독료 입금 4000명 도전 현황

2018. 8. 28. 기준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3회	8	6	18회	98	88	33회	52	45	48회	1	1	63회	0	0
4회	11	9	19회	109	84	34회	26	39	49회	4	42	64회	0	0
5회	18	11	20회	73	64	35회	44	35	50회	3	33	65회	1	0
6회	25	18	21회	111	95	36회	33	55	51회	5	18	68회	1	0
7회	31	28	22회	99	79	37회	35	32	52회	2	4	67회	0	1
8회	37	27	23회	117	80	38회	40	44	53회	0	3	68회	0	0
9회	30	24	24회	113	116	39회	20	57	54회	1	4	69회	1	1
10회	51	37	25회	93	158	40회	29	33	55회	2	1	70회	0	0
11회	81	62	26회	94	95	41회	27	29	56회	0	0	71회	0	0
12회	83	76	27회	73	71	42회	14	17	57회	0	0	72회	0	0
13회	106	95	28회	87	78	43회	13	14	58회	1	1	기타		
14회	76	70	29회	115	108	44회	12	12	59회	0	0	총인원	2,629	2,586
15회	89	73	30회	112	100	45회	11	5	60회	0	0			
16회	85	67	31회	74	79	46회	9	30	61회	0	0	2018년도 목표		4,000
17회	72	63	32회	41	41	47회	5	13	62회	0	0			

2018년 기별분담금 및 야구후원금 납부 현황

(완납시 ○ 표기)

	기별분담금	야구후원금																						
13회	60	30	21회	150	○	100	○	29회	150	○	100	○	37회	120	○	80	○	45회	50	○	20	○		
14회	90	50	22회	150		100		30회	150	○	100	○	38회	120	○	80	○	46회	50	○	20	○		
15회	90	○	50	○	23회	150	○	100	○	31회	150	○	100	○	39회	90	○	50	○	47회	50	○	20	○
16회	90		50		24회	150	○	100	○	32회	150	120	100	80	40회	90	○	50	○	48회	50		20	
17회	90		50		25회	150	○	100	○	33회	120	○	80	○	41회	90	○	50	○	49회	50	○	20	○
18회	120	○	80	○	26회	150	○	100	○	34회	120	○	80	○	42회	90	○	50	○	50회	50	○	20	○
19회	120	○	80	○	27회	150	○	100	○	35회	120	○	80	○	43회	90	○	50	○	납부 총액	3,390만	2,120만		
20회	120	○	80	○	28회	150		100		36회	120	○	80	○	44회	50	○	20	○					

